



흰옷 입은 관세음 보살님이 검은 말을 타고  
천하에 진리를 전하고 간난에 신음하는 중생을 구제하시듯이  
동국의 모든 가족들도 임오년 한해 용맹 정진 하시길...

白衣觀音周遊傳法  
壬午年歲朝  
申 亥

신년취호 = 송영방(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 속 깃털 하나

이 운 학

눈 위에 찍힌 새 갈래  
새 발자국이 지워진다.  
양지에 찍힌 새 갈래  
새 발자국이 흩어진다.

물이 되는 새 갈래  
새 발자국.  
진흙탕 물이 되는 새 갈래  
새 발자국.

눈 위에  
속 깃털 하나 살짝 떨어뜨린  
새 발자국 주인 설레는 마음.

첫 등산객  
새 발자국 주인 설레는 마음.

속 깃털 하나  
바람 세례를 받는다.  
속 깃털 하나  
부끄럼 세례를 받는다.

이운학 시인(인문대 국문 90졸)은 1990년 '청소부' '제비집'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현재 도서출판 꽃핀자리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지면안내

- 기 자 방 담 8면  
본사 기자들이 모여 다사다난 했던 지난해를 정리해 보았다. 2001년 한해를 뒤돌아 보며 올해를 예상해 본다.
- 신 년 사 2면
- 대선관련 설문조사 6면  
벌써부터 정치계는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선 준비로 분주하다. 이에 본교 학생들의 대선 주자 지지도와 투표성향 등을 조사해 대선을 미리 접쳐본다.
- 동대문학상·학술상 9~13면
- 사진으로 돌아보는 2001년 16면  
만경대 방명록 파문, 미 테러 사건 등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 해동안 학내의 주요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사진을 통해 돌아본다.

# 슬기와 화합으로 새역사 창조하는 임오년

찬란히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광명으로 동국인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시 태양은 눈부시게 떠올라 밝은 빛살을 온 누리에 비추어 주고 있듯이, 우리 동국인들도 희망에 찬 새 출발을 힘차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는 진정한 의미는 과거에 대한 회고와 곁머리 자기 성찰 위에 현재의 좌표를 확인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과 통찰로써 새 역사의 청사진을 펼쳐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시련과 고통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한층 더 많은 것을 새롭게 설계하고 진지하게 모색하며,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결단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든 어려움도 우리 동국인 모두가 슬기를 모아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인내한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여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동국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들은 삼기일전하여 대학인의 지성과 양심으로 대학 기



풍의 쇄신과 교육의 질적 고양을 위해 모두 깊은 자성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동국의 중흥과 세계적인 대학건설을 향한 큰 꿈과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이완성과 불국정도의 건설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설립된 우리 동국학원이 일세기에 가까운 장구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동안 동국대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 초·중·고교 및 전자계산원 등 10여개의 많은 교육기관과 6개의 양·한방병원을 유지, 경영하게 된 것은 오직 건학이념을 교육구국과 사회봉사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주체적으로 구현해 온 노력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동국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동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불교종합병원의 건

설 불사가 이제 완공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올 하반기에 대망의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심장이라 할 중앙도서관 신관의 건축공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도 전 동국인들은 동국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참다운 인간 교육을 바탕으로 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보지식사회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역사는 이상과 뜻을 가지고 도전하는 주역들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모든 주체들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단결하여 동국의 중흥이라는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해서 하나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화합과 결속의 기운이 성숙되고 모든 동국가족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동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확실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 동국 가족 모두가 원하는 일이 원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 녹 율

새 천년의 첫 장을 힘차게 열어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나가겠다는 투철한 의지와 신념으로 출발한 신사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더욱 도약해야 하는 당위의 새 날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위대한 지도적 역량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자기정체성의 자취입니다.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미래 비전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쇄신의 각오를 다하는 결과에 의해 역사의 방향과 평가는 다르게 됩니다.

그러하여 우리 대학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예감하고 넓은 껍질 속의 안주에서 탈피하여 여러 제도와 여건을 개혁하는 데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것은 형식의 변화로만 호도할 수 없는 의식과 가치의 전환을 의미하는 실천적 노력이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학 개혁의 도 또한 불균형을 우리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침체와 안일의 현실을 타개함에 있어 남다른 성취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구성원 전체의 헌신적인 동의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국의 새 역사를 주도하는 사명감으로 다 함께 동참하는 결속을 통하여 개혁의 아름다운 성과를 누릴 준



비를 해야 합니다. 확고하게 정착된 수요자 중심의 교과 구성과 교육 내용은 물론이며 교육 환경의 개선 등으로 변화적인 요구를 최대한으로 제공할 것이며, 연구와 교육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노력도 월등한 수준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공허한 구호와 주창의 허상보다는 고단한 실천과 참여를 통해 개혁에 따른 자기변혁을 기꺼이 감수해 온 구성원 전체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는 더욱 내실을 다지는 데 전력하고자 합니다.

일산 제3캠퍼스 조성의 전초로 불교종합병원이 상봉기에 준공되고, 이어서 금년 내에 개원을 하게 될 것이며, 도서관 신축이 완료되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교양교육의 강화를 위한 재반 여건을 완비하며, 사이버강좌 및 계절학기의 확대를 통한 교육

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할 것입니다. 이는 학교의 경영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의 의지만으로 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 노력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목과 불신에서 비롯되는 여하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대학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고안시키는 한편, 거룩한 건학 이념의 투철한 구현을 위한 대승적 상생 화합을 모두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올해는 더욱 절제와 인내가 요구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학생수준교직원과 주체들은 금년만은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기보다 동국의 내일을 위해 잠깐 멈추어 쉬면서 지켜보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무 한 그루와 계속 한 켠만 보지 말고 장엄한 숲과 우람한 산을 두루 헤아리는 아량과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음을 깨닫고, 더 이상 무기력과 열매감과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100년 동국의 영광을 건설하는 일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동국대학교 총장 송 석 구

## “일만이천 모두가 동약의 주인으로”



동약 일만이천 화우여러분!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동반자는 평평 내리는 날을 기다리지만 가끔씩 눈발만 날릴 뿐 무척이나 춥고 건조한 겨울입니다.

1년간 수배자로 살아오면서 또다시 1년을 수배자로 살아가겠다고 준비하는 지금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학우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많기에, 반쪽짜리로 신음하는 민족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기에 잠시도 앉아서 힘을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야 될 일을 하고싶은 일로 받아들이고 내 온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해야 할 일, 아니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2001년의 굵적굵적한 사건들을 정리해보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더군요.

등록금 수입은 전국 최상위권 교육환경투자, 학생경비는 수도권 최하위권이라는 평가와 워낙 자주 바뀌는 학사행정과 학제개편과 일산 병원 개원문제, 33억 공금횡령 등은 우리 학우들을 분노와 혼란 속으로 빠뜨렸죠.

또한 8·15 민족공동행사 방북 대수업을 학교가 나서서 직위해제 시킨다고 하니 동국인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내년 사립대 등록금 두 자리수 인상 예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한숨과 생활고로 얼룩질 부모님을 생각하니 답답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 정리해고, 고물가로 실자리를 잃어가는 우리 아버지, 쌀값 폭락·쌀시장 개방으로 쓰러져가는 우리 어머니인데 말입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다할 수 있겠나하는 의문이 들것 같습니다. 하기에 더욱 일만이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하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깊이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약 학우의 다양한 목소리 다 담을 수 있도록 넓고 넓어지는 학생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넓고 깊은 그 우물에 일만이천의 주인된 모습과 학원자주, 공동선언 이행으로 빛나는 맑은 샘물 가득 채워 여러분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건강하고 2002년에는 정말 모든 바람 다 이뤄졌으면 합니다. 학우여러분 빨리 보고싶습니다.

제34대 서울캠 총학생회장 주진완

## 목격글

### 불교대

힘겨웠던 한해가 지나가고 어느새 새해가 밝았군요. 동국학우 여러분!  
올 한해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원하는 바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좋았던 일들도 많았지만, 그보다 부족했던 점도 많아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2002년은 어느 해보다 활기찬 해가 될 것입니다. 다들 분발하시어 행복한 한해를 만들어 나갑시다.

### 문과대

며칠 전에 달력을 한참 보다가 문득 2002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34대 문과대 학생회를 보고 계시는 많은 학우분들이 경험 없고 어린 저희를 많이 염려하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젊음이라는 가능성으로 도전으로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젊은 도전으로

학우들과 함께 도약하는 34대 문과대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최경희

### 사과대

올해의 계획은 지난 한해를 반성함으로써 시작해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 공부, 투쟁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언제나 사회과학인들과 학생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선거 때 섰던 마음을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영건

### 경영대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인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취업난으로 고생하던 선배님들, 거리로 나와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 농민분들의 시름하던 얼굴을 올해에는 볼 수 없는 사회였으면 합니다. 경영대 학우여러분들도 즐겁고 활기찬 2002년 되었으면 합니다. 유명빈

### 생자대

올 한해는 그간 신뢰받지 못했던 생자

## “동국인의 결속으로 시대의 주역이 되길”

존경하는 20만 동국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하는 2002년 임오년의 새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1년 총동창회가 '동국인 체육대회' '동국인 송년의 밤' 등을 통해 동문간에 우의를 차곡차곡 다지면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동창회 임원진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동문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년의 새해를 맞아 우리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동문간의 우의와 협력을 다져나가는 활력 넘치는 동창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모교는 영원한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며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동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교가 품어준 임없이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 단과대 학생회장 신년인사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범대

천백학원인, 그리고 동약 학우 여러분!  
2002년은 백년지대계를, 참교육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대동의 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선임

### 예술대

예술대 학우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는 설렘보다 여름에는 제대로 방송망도 설치되지 않아 모기향을 피워야 하고, 겨울에는 단시간 학교에서 제공되는 난방으로 추위에 떨며 작업을 하는 예술대 친구들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앞으로 학우 분들의 요구에 당당하게 화합하는 진정한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송민

이 나라 곳곳에서, 또 세계를 무대로 이 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국각지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총동창회가 앞장서서 유기적으로 결속시켜, 동문상호간의 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가면서 동문 여러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몇몇 개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20만 동국가족들이 동국발전이라는 큰 목표아래 하나로 뭉쳐 단결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이 동문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믿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한 새해에도 부단한 정진으로 이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동국인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넓고 크신 원력으로 20만 동국인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대로 몽쳐온 우리 동국동문들의 우의를 더욱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국동문들은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리 총동창회는 어느 대학보다 돈독한 정과 의리로 뭉쳐온 우리 동국동문들의 우의를 더욱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국동문들은

### 단과대 학생회장 신년인사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야종

야간 강좌 학우여러분.  
저는 요즘에도 학교에 나온답니다. 지금부터 새해의 맛을 준비, 33억 공금횡령사건 대공, 강정구 선생님 직위해제 막아내기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 올해 학생회를 준비하는 일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중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눠요. 이상현

### 인문대

저는 2천 인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고 학생회 일꾼들의 소망인 2천 인문인의 힘과 지혜에 의거해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천 인문인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혜경

### 자연대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가슴이 벅차 오르

## “새로운 각오로 2002년을 설계하자”



온방골 1만 동국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제18대 총학생회장 박준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 때 1만 학우들과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회 건설을 위하여 저희들은 방학중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한파로 인하여 어려워진 취업의 경쟁 속에서 대학만의 문화는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각오로 다지지 않으면 점점 더 그 자리에서 서기가 힘든 상황이며 새로운 대안조차 내세우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속에서 시대에 뒤지지 않은 새로운 대학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지표를 바로잡는 일 또한 저희들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 뒤에는 1만 온방골 학우들이 있기에 더욱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신바람 나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거기간 중 제가 내건 공약들은 동국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간 이어져온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이 왜 생겼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며 앞으로 제가 약속한 여러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 학생회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동국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주역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동국인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고 새로운 동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다가오는 2002년을 준비하고 설계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온방골 터전 또한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 새롭게 이루어 질 수 있고 새로운 신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만의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 속에서 많은 질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새시대의 동국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굳은 각오로써 여러분들 앞에 부끄럼 없는 학생회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방학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새학기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여러 학우님들의 기려에 변영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18대 경주캠 총학생회장 박준민

는 한편, 새로운 변화가 가져올 혼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학우들을 위한 학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성기

### 법정대

21세기를 적격과 설렘으로 맞이한 지 어느덧 두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1만 동국 학우 여러분들도 내일을 위한 준비와 계획을 더욱 철저히 다져야 할 시기가 생각됩니다. 1만 동국 학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봉홍

### 상경대

새해를 맞아 학우 여러분들께 세배드립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책임에 결실을 맺고자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를 마감하며는 허탈하고 후회스럽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움만이 남는

것이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일은 잊고 보다 긍지와 의지 있는 노력으로 올 한해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신나는 2002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석룡

### 관광대

젊은 패기 하나로 승부하는 동국인의 해가 밝았습니다. 젊음! 그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동국인의 무서운 힘입니다. 저희 관광대의 젊음 또한 동지처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학우여러분의 젊은 끼를 맘껏 발휘해 보십시오.

저희 고도 비상 3대 관광대 학생회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태식

### 한의과대

22대 한의대 학생회는 함께 만드는 어울림이라는 기초처럼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우러짐의 장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며, 동국한의 힘을 하나로 모아 더 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마지막 하루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SRC, 연구소 평가 A등급 획득  
내년 연구비 증액 지원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소장=강태원·물리학, 이하 SRC)가 한국과학재단에서 발표한 '99년 지정 우수연구센터 3년차 중간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전국 13개 연구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양일간 실시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연구소는 SRC와 서울대 복합다체계연구센터, 고차구조형 유기산업재료 연구센터 스카이스트 분자설계 및 합성연구센터와 첨단정보기술 연구센터 등 4개 연구소이며, 내년도 연구비를 증액 받게 된다.

'한국어 학당' 3월 개설  
외국인과 해외교포 대상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어영문학)이 오는 3월 '한국어 학당'을 개설한다. 외국인과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어 학당은 △정규과정 △집중과정 △여유 특별과정으로 이뤄지며, 계절별 총 4회기로 나눠진다. 교육내용은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에서부터 한국 문화 이해하고 익히기 등이다. 한편, 입학기 등록마감은 다음달 7일까지다.

교수회 신입회장단 선출  
최정호 박종훈 교수

심익섭(행정학) 전 회장이 사퇴한 교수회가 지난달 6일 임시총회를 열어 박종훈(윤리문화학) 교수를 비롯한 신입회장단을 선출했다. 신입회장단은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임호일(독일학) 교수 △총무=송일호(경제학) 교수 △편입총무=민창식(토목환경공학) 교수 △감사=이명준(식물자원학) 교수로 꾸려졌다.

큐슈산업대와 교류 확대  
문과대서 전 단과대로

일본 큐슈산업대학대표단이 오는 16일 학술교류협정 조인식을 위해 본교를 방문한다. 이번 협정은 그동안 문과대에 한정됐던 교류 범위를 전 단과대로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학생 △교수 △학술 교류와 교육·연구정보와 자료 교환이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류팀의 한 관계자는 "문과대의 성공적인 교류로 인해 전 단과대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2년 정시지원 큰 폭 상승

어려운 수능·분할모집 ... 평균 경쟁률 6.95대 1

200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본교의 평균 경쟁률이 6.95대 1로 예년에 비해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특히 △예술대 연극영화과 연극전공 실기부문(25.8대 1)과 미술학부 서양화전공(23.5대 1) △사범대 지리교육과(16.6대 1)는 치열한 경쟁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높은 경쟁률은 지난해와 달리 '가'나 '다'군으로 분할 모집해 복수지원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가' '다'군은 면접·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나'군과 달리 수능 변환표준점수만으로 모집해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과대 가군(25.9대 1) 나군(6.2대 1) 다군(22.0대 1) △사범대 국어교육과 나군(2.7대 1) 다군(19.2대 1)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논술과 면접에 부담을 느껴 '나'군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말했다. 또한 본교에 지원한 입시생들의



2002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지난달 11일부터 3일간 실시됐다.

점수분포대 역시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이번 수능은 평균 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총점 점격차까지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거나 지원 가능 대학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때문에 경쟁률 상승과 함께 고득점 수험생들이 본교에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시모집부터 새로운 학부를 신설해 분리 모집한 △문과대 인문학부(7.6대 1) △경

영대 경영정보학부(4.9대 1) △정보산업대 산업시스템공학부(4.8대 1)는 비교적 안정된 지원을 보였다. 문과대의 경우 철학, 사학 등을 인문학부로 분리함에 따라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등 어문계열학과만 포함된 문과대의 경쟁률이 지난해 3.9대 1에서 14.7대 1로 큰 폭 상승했다.

대학부 dmz@dongguk.edu

본사주최 동대학술·문학상 시상

인문과학부문 장원 이승준 군 외 6명 수상



송석구 총장이 문학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제16회 동대학술상과 제39회 동대학술 시상식이 지난달 27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학술상은 인문과학부문에 △장원=이승준(철4)의 '한국과 서양 사회 현대성의 초기적 형태 검토' △가작=안미라(불교3)의 'Avalokites'vara의 권능 강화에 관하여', 사회과학부문에 △장원=황천덕·홍기영·문재섭(정보관리3)의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아비타' △가작=김주환(사회4)의 '푸코의

담론 및 권력 이론에서 주체와 저항의 문제'가 수상작에 선정됐으며 자연과학부문은 입상자가 선정되지 못했다.

문학상은 소설부문에 △가작=신현대(문창2)의 '단선작업', 시 부문에 △장원=김현(문창2)의 '갯벌에 핀 燕窩' △가작=설현수(문창3)의 '버스에서'이며, 소설 부문 장원과 평문부문은 수상작이 없다.

▶관련기사 9~13면(특집)

사법시험 2차 8명 합격  
행정·입법고시 합격자 발표

제43회 사법고시와 군법무관시험 2차 결과가 지난달 5일 발표됐다.

이번 사법고시 2차 시험에는 △김유명(사회85졸) △김영철(법95졸) △하기복(법00졸) △정성일(법00졸) △한석현(법00졸) △정우근(법4) △강세현(경행4) △정관영(법학 석사과정) 등 지난해와 같이 본교 출신 총 8명이 합격했다. 또한 경주캠퍼스 최정복(법95졸) 동문은 군법무관 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한편, 이희정(경행99졸) 동문은 제45회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했고, 한석현 동문은 사법시험과 입법고시 합격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002학년도 시무식  
내일(2일) 상록원에서

2002학년도 신년하례 및 시무식이 내일(2일) 열린다. 시무식은 송석구(철학)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정각원에서 예불의식을 치른 뒤, 상록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될 예정이다.

법인세 환급금 횡령사건

재단행정 문제제기로 확산

횡령직원 7년구형 ... 조사위 결과에 관심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법인사무처 경리담당직원 김모 씨(37)에게 7년형이 구형되면서,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법인 인감도장을 도용, 우체국 통장을 개설해 99년에 19억 7천여만원, 2000년에 13억 6천만원 등 총 33억여원의 법인세 환급금을 횡령, 벤처기업 투자와 선물·읍선 거래 등에 사용했다는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5일 선고공판할 예정이다. 법인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8일 현재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거액의 공금횡령이 2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단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교수회는 "지난해 5월 환급금 문제가 처음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11월까지 방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해 예산이 70억원 법인사무

처에서 33억의 환급세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재단측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재단은 지난달 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공공부정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영배)'를 구성했다.

현재 조사위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법인회계와 필요한 범위내 학교회계에 대해 조사중이며,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총림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학담, 이하 총관위)도 '동국학원 횡령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18일 황영수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학교예산상 법인세 환급금 내역 등에 대해 질의했다.

총관위는 오는 18일 개최될 2차 회의에 송석구 총장과 기획인사처장의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재단공금 횡령사건은 회계조직에 대한 학교당국의 관리부재"라는 일각의 주장에, 학교측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총동창회 '제30회 동국인의 밤' 개최

권노갑 회장, 동문회관 건립 계획 시사

'제30회 동국인의 밤' 행사가 지난달 13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총동창회(회장=권노갑) 최현희(국문88졸)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축하해, 공로패 수여식이 이어졌다. 김유명(사회85졸) 동문을 비롯한 사법·행정고시 및 군법무관

시험 합격자 등 20명은 축하패를 받았고,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윤두옥(생물63졸) 동문 외 24명은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권노갑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문회관 건립은 동국 100년사를 기념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창과 신현대 군 신춘문에 당선

단편 '공어와 빙어' 세계일보 소설부문에

문예창작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신현대군이 2002년 세계일보 신춘문에 소설부문에 당선됐다. 당선작인 단편 '공어와 빙어'는 떨어져 살던 이랑성 쌍둥이 남매가 우연히 만나 벌어지는 일을 그린 내용이다.

신군은 "앞으로 소설공부를 꾸준히 해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글을 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신현대 군은 39회 동대문 학생 소설부문 가작에 입상하기도 했다.



후광(後光)

장계환 (불교대학 불교학과)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 고개를 돌리면 그 온화한 모습과 함께 부처님 머리 뒤에 있는 둥근 원이 눈에 들어온다. 불상뿐만 아니라 탕화에도 그려져 있는 이 둥근 원은 광배(光背)라고 하며, 또는 광염(光焰) 후광(後光)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상징한다. 비꾸어 말하면 어둠을 없애고 진리를 밝히는 빛을 상징화한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광명은 일체 중생과 만물에 골고루 비취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무엇으로도 이 빛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애(無碍)의 광명'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누구의 후광이냐?"라던가 "후광을 입었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후광'이란 단어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후광의 의미는 욕망과 허욕으로 일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의 후광, 즉 그 힘을 빌리는 의미로 나쁘게 전하고 있다.

요즘 일간지를 메우는 '몸통'이니 '깃털'이니 하며 거론되는 여러 '리스트'들도 실은 이 후광을 이용한 결과물이다.

경전에서든 나쁜 짓만 일삼는 아차가 부처님의 광배에서 한 조각의 빛을 훔쳐 가지고 다니면서 보살행세를 하여 융숭한 대접을 받다가, 결국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후광이 빛을 잃게 되자, 아차는 망신을 당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남의 후광에 기생하려는 간교한 무리들을 경계하는 얘기다.

그러나 진정한 후광은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질러 온 나쁜 습성,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환하게 비추어 준다.

마치 보이지 않던 먼지가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로 인해 비로소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그 빛은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지혜의 빛, 무명을 깨뜨리는 광명의 빛을 의미한다.

교수동정

▲김정유(경제학) =오는 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미국 Albany N.Y.에 세미나 참가 및 자료수집 위해 방문.

▲박상진(화학공학)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해외연수.

▲박준영(산업공학)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5월까지 미국 미시간대학교 가상현실연구실 방문 연구.

▲이혜은(지리교육)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역연구 답사 및 자료수집을 위해 호주 방문.

2002학년도 학사일정

년	월	일	학사내용	비고
3	4	4(월)	개강	총무팀 각 교학과 학사지원실 학사지원실 각 교학과 각 교학과 각 교학과
		4(월)	2002학년도 입학식	
		4(월) ~ 6(수)	1학기 휴학 신청	
		4(월) ~ 6(수)	1학기 특별시험 접수(1학년)	
		6(수) ~ 8(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9(토)	1학기 특별시험(1학년)	
		18(목) ~ 20(수)	조기졸업신청	
2	4	7(일)	1학기의 1/3일	학생복지실
		12(금)	4·19 등반대회	
5	19	25(목)	1학기의 1/2일	학사지원실 학사지원실 각 교학과 학사지원실
		8(수)	개교 96주년 기념일	
		12(일)	1학기 2/3일	
		14(화) ~ 16(목)	부처님오신날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27(월) ~ 31(목)	전공/복수전공 신청(2학년)	
6	17	3(월) ~ 16(일)	1학기 강의 평가	홈페이지 각 교학과 각 교학과 학사지원실
		10(월) ~ 12(수)	2학기 복학·재입학 신청(1차)	
		17(월) ~ 21(금)	2학기 수강신청	
		17(월) ~ 28(금)	1학기 성적 처리(일력, 공시 및 정정)	
		17(월) ~ 7. 11(목)	하계 계절학기	
		17(월) ~ 8. 25(일)	하계방학	

년	월	일	학사내용	비고
8	19	19(월) ~ 21(수)	2학기 복학·재입학 신청(2차)	각 교학과 재무회계팀 총무팀
		19(월) ~ 24(토)	2학기 등록	
		22(목)	200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6(월)	개강	
		26(월) ~ 28(수)	2학기 휴학 신청	
		26(월) ~ 28(수)	2학기 특별시험 접수(1학년)	
		28(수) ~ 30(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2	9	31(토)	2학기 특별시험(1학년)	학사지원실
		17(화) ~ 19(목)	조기졸업신청	
0	10	26(목) ~ 27(금)	수강과목 취소(W)	각 교학과
		29(일)	2학기의 1/3일	
2	11	10(17(목))	2학기의 1/2일	학사지원실
		3(일)	2학기의 2/3일	
12	11	5(화) ~ 7(목)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사지원실 각 교학과 홈페이지 학사지원실
		25(월) ~ 29(금)	전공/복수전공 신청(1학년)	
		25(월) ~ 12. 8(일)	2학기 강의 평가	
		9(월) ~ 11(수)	1학기 복학·재입학 신청(1차)	
		9(월) ~ 13(금)	200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2	12	9(월) ~ 20(금)	2학기 성적 처리(일력,공시 및 정정)	홈페이지/담당교수 학사지원실
		9(월)~2003. 1. 3(금)	동계 계절학기	
2	2	9(월)~2003.2.28(금)	동계방학	총무팀 재무회계팀 각 교학과
		14(금)	200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17(월) ~ 22(토)	1학기 등록	
		24(월) ~ 28(수)	1학기 복학, 재입학 신청(2차)	

청우 동국상 제정 안내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7~10대 회장이셨던 故 靑牛 崔載九선생(1952년 국어국문학과 졸업)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평소 최재구 선생을 흠모했던 동국가족들이 뜻을 모아 '청우 최재구선생추모사업회'를 결성하고 그 첫 사업으로 '靑牛 東國賞'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12월28일 작고한 최재구 선생은 총동창회장 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불교신도회장, 국회 경제과학위원장 등을 지낸 4선 국회의원, 한국에 최초의 금메달을 안긴 몬트리올 올림픽선수단장 등으로 동국가족의 긍지를 드높이신 자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비록 최재구 선생은 떠났지만 우리 동국과 불교계,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뜨겁고 적극적으로 살다간 그 열정은 지금도 우리들 가슴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故 청우 최재구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동국발전에 더욱 발심정진하는 우리 동국가족들의 사표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년 '靑牛 東國賞'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동국가족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 1. 시상 명칭 : 靑牛 東國賞
- 2. 후보자 추천 : 2002년 11월1일 ~ 11월30일
- 3. 추천 방법 : ① 총장, 총동창회장, 청우최재구선생추모사업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동국가족 10인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은 자
- 4. 추천 서류 : ① 추천서(소정양식) 1부 ② 이력서(사진 2매 첨부) 1부 ③ 공적실명서(소정양식) 및 관련자료 1부
- 5. 수상자 선정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함
- 6. 시상 일자 : 2002년 12월(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발표)
- 7. 시상 내용 : 상패 및 부상
- 8. 문의 연락처 : 윤현영 016-896-3916 송재운 (02)2260-3189

청우 최재구선생 추모사업회

2002학년도 동국대학교 한국어 과정

- 1. 정규 한국어 과정(봄, 여름 10주) - 월~금 오전 9:00~오후 1:00(주당 20시간) -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사업의 혹은 개인적 이유로 한국어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
- 2. 집중 한국어 과정(봄, 가을 10주/여름, 겨울 5주) - 월~목 오후 6:30~8:30(주당 8시간) - 체류 외국인 및 교포 대상으로 오전의 정규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 대학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며, 학생비자와는 관계없음.
- 3. 여름 집중 한국어 및 문화체험 과정(5주) - 월~금 오전 9:00~오후 12:00(주당 15시간) - 15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교포 자녀, 일본 방학에 맞춘 특강, 정부기관 및 사업체 외국인 위탁교육 추진.

학기	등록 마감	기간	수업료
봄	2002.2.7	2002.3.11~5.17	₩900,000
가을	2002.8.2	2002.9.9~11.15	

학기	등록 마감	기간	수업료
여름	2002.5.17	2002.6.10~7.12	₩350,000(봄, 가을)
겨울	2002.8.2	2002.9.9~11.15	₩200,000(여름, 겨울)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Tel: +82-2-2260-3471~1 Fax: +82-2-2260-3691  
E-mail: today@dongguk.edu URL: http://today.dongguk.ac.kr

### 한국외대 학점교류신청 오는 11일까지 국제교류팀

한국의 국어대학(총장=조규철)과의 2002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신청이 오는 11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학점교류는 최대 17학점까지 가능하며, 자격은 매 학기 최소 15학점을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 수학계획서를 재학·성적증명서와 함께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국제교류팀에 제출하면 된다.

### 2차 어학 특강 접수 영어·일본어 3개 강좌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어영문학)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해학관 1층 사무실에서 2차 어학 특강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영어회화 △Writing&Speaking △일본어 강좌이며 정원은 각각 13명이다.

각 강좌는 90분간 주 5일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수강생은 모의 토익 테스트를 무료로 응시할 수 있다. 수강료는 각각 7만원, 9만원, 7만원이다.

### 원충, 비상대책위 결성 3월 중순경 선거 예정

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황범룡·정보관리학 석사과정, 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원충은 지난 11월 23일 2차 마감까지 등록한 후보가 없어 △황범룡(정보관리학 석사과정)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이주환(사학 박사과정) △정윤길(영어영문학 박사과정) △허재혁(사회학 석사과정) △우창국(경영학 석사과정)으로 비대위를 결성했다.

이와 관련해 정윤길 원충 부회장은 "지난해 바뀐 조교제도 때문에 후보자 모집이 어려웠다"며 "3월 중순경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편입학 오는 22일부터 지원 내달 5일 합격자 발표

2002학년도 1학기 편입학 전형일정이 발표했다. 원서교부는 오는 12일부터 23

일까지 각 건물 수위실과 지정 교부처에서 이뤄지며, 22일부터 이틀간 체육관에서 접수한다.

또한 29일 오전 8시에는 예비소집이 열리며,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필답·면접·실기고사가 진행된다.

합격자는 다음달 5일 발표되며,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방학 중 3시까지 단속근무 중도 자료실 5시까지

학내 전 부서가 다음달 14일까지 방중 단속근무를 실시한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단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자료실을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며, 토요일은 휴무이다.

한편, 사무처(처장=황영수)는 2월 말까지 10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 홈페이지 '복덕방' 개편 개인 사용자에 게시판 허용

본교 홈페이지의 복덕방 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됐다.

학생복지실만 정보를 게재할 수 있었던 '이런질 저런질' 게시판은 학교의 허가를 받은 개인에게도 개방됐으며, 게시판 집에 대한 거주경력자들의 △시설 △정결도 △교통장부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룸메이트 구하기 △하숙집 자랑·고발 게시판이 추가됐으며 자취생을 위한 임대차 거래상식 안내기능이 신설된다.

### IT 취업 특강 열려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IT 취업 특강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린다.

'e-비즈니스'와 '웹 프로그래밍' 과정이 개설되는 이번 특강은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을 대상으로 정보문화관 ESC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비즈니스 과정은 △e-biz 전략 △e-biz 솔루션 △e-biz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웹 프로그래밍과정은 △HTML&DHTML △Java △JavaScript & Applet △ASP △JSP △창업보육센터 견학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팀 한 관계자는 "졸업예정자들이 심각한 취업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교수 직위해제방침 논란 일어

## 학교 "다른 교수와 형평성 유지" ... 교권·수업권 침해 반발

만경대 방명록 파문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 강정구(사회학) 교수의 직위해제 방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날 7일 직위해제안을 재단에 공식요청하고, 10일 강교수 본인에게 통보했다.

직위해제에 대해 학교측은 다른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오광진 인사관리팀장은 "그동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는 모두 직위해제됐다"며 "강교수에겐만 해당되는 특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는 즉각 취소되며, 교수직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학생회와 사회학과 학생회 등은 강교수가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만큼 다른 형사사건과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강교수 역시 "국보법 7조 고무·찬양되는 정부여당이 개정 1순위로 꼽고 있는 만큼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학교측의 형평성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이다.

또한 '강정구교수 무죄판결추진위원회(대표=홍근수 목사 외, 이하 추진위)'는 이사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를 직위해제시킨 사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진위는 또한 "지난 94년 '한국 사회의 이해' 사건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경상태 정상환·정진상 교수는 무죄판결까지 6년간 법정공방을 벌이면서도 교수 신분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국보법으로 기소된 모교수를 직위해제한 국립대에 대해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란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회학과 학생들은 강교수 직위해제는 '수업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강정구 교수는 이번 학기 전공을 포함한 3개 강좌를 담당하고 있고, 100여명의 남는 학생들이 수업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사회학과 학생회(회장=임신영·사회3)는 "강교수가 직위해제될 경우 전공수업을

시간강사가 맡게 돼 양질의 수업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수회장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교수를 직위해제 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며 규정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학교측의 이번 조치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교권위원회를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정구 교수는 현재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중이며, 직위해제안은 이달중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강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김도영 기자  
cirous@dongguk.edu

### 박종훈 신임 교수회장을 만나

## "당면 과제 해결에 박차 가할 터"

### 연봉제 문제제기·총장선출준비위 구성 계획

제7대 교수회장에 취임한 박종훈 교수를 만나 교수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재단 공금횡령 사건 등 여러 문제로 학교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출된 소감은.

= 취임하자마자 계속되는 회의로 정신 없지만 산적인 문제가 많은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빠른 시일 내로 집행부를 구성해 시간별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실추된 교수들의 권익을 보충하기 위해 학교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 교수노조 출범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은.

= 교수노조는 교수들의 의견이 학교당국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외면돼 왔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교 교수들이 어느 정도 노조에 가입했는지 아직 교수회에는 파악된 바 없다. 하지만 교수들의 의견이 도외시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노조에 가입하는 수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 오는 12월 열리는 총장선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경주캠퍼스 교수들과 함께



총장선출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꾸리고 있다. 준비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선거일정과 후보자 등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교수직선으로 총장 후보가 선출되도록 노력하겠다.

- 앞으로 교수회의 활동 계획은.

= 우선 당면한 연봉제 시행에 대해 단과대 특성을 반영한 업적평가기준이 마련되도록 꾸준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또한 거리적 제약으로 교류가 부족했던 경주캠퍼스 교수회와 대의위원회를 자주 열고, 학교당국에 요청해 학사보고회를 함께 개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합장 ...

지난달 17일 동국학원 부설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9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법회에서 학생들은 계를 지키며 살 것을 다짐했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 사이버교육 시스템 '업그레이드'

### 이번 학기부터 동영상 강의 기능 등 추가

2002학년도 1학기부터 가상강좌 시스템이 새로워진다.

가상대학(학장=박부권·교육학)은 지난 16일 K1 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디자인 △자율출석확인 △플래시 퀴즈평가 △실시간 동영상 △토론수업을 위한 채팅창 △동영상·플레이스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중이다.

또한 콘텐츠는 학내망에, 동영상은 한국통신망에 연결하여 이용자

는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개편된 사이버강좌는 이번학기부터 운영되며, △실시간 동영상 강의 △동영상·플레이스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콘텐츠는 일반교양과목인 '대학기초영어'에 한해 시범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가상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사이버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금융기관 학자금 용자 신청

2002-1학기 금융기관 학자금 용자를 실시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추천서 교부장소**
  - 대학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2002년 1월 28일(월) ~ 2월 1일(금), 각 대학교학과 또는 과사무실
  - 대학원생(신·편입생 포함) : 2002년 1월 28일(월) ~ 2월 1일(금), 각 대학원 교부부
- 신청 방법** : 위 추천서 교부장소에 신청하여 학자금용자 추천서(직인날인)를 교부 받은 후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은행 점포에 직접 신청함.
- 용자금액** : 등록금 납입금 범위 내(입학금 포함)
- 용자내용**
  - 시행은행 : 국민은행(주력은행), 서울은행, 하나은행, 조흥은행
  - 대출금리 : 연 5.25%(예상)
- 대출종류 및 상환방법**
  - 장 기 - 최장 11년(재학기간 4년 포함) (재학기간 : 이자상환, 졸업 후 : 원금과 이자 균등상환)
  - 단 기 - 2년 이내 균등상환(대학원생은 단기간 해당됨) (용자의월부터 원금과 이자 균등상환)
- 제출서류**
  -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 학자금용자추천서 1통(학교발행)
    - 등록금고지서 1통
    - 다음 중 택일(신용카드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재산세영수증 또는 등기부등본 - 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있음)
  -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용자받고자하는 경우
    - 가입방법 : 취급은행에서 보험가입서류에 서명하므로써 가입.
    - 제출서류 : 학자금용자추천서 1통(학교발행), 등록금고지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서울보증보험료 예시(2001-2학기 기준)

대출종류	거차기간	상환기간	총대출기간	보험료수준
단기대출		2년	2년	25,880원
장기대출	1년	7년	8년	60,950원
장기대출	2년	7년	9년	66,030원
장기대출	3년	7년	10년	69,110원
장기대출	4년	7년	11년	70,800원

- 기타사항**
  - 농촌 출신의 농협조합원 및 농업인 자녀는 농협단위조합에서 용자업무를 취급하나 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없다.
  -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받거나, 타 기관에서 학자금 용자를 받은 경우는 용자대상에서 제외됨.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 신청

2002-1학기 한국학술진흥재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를 실시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 및 기준** : 인원제한 없음  
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부양의무자의 자녀  
나. 신규신청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거주지에 6개월 이상 거주  
다. 계속신청자도 매 학기 신청을 요함.
  - 신청금액** : 1학기 150만원(이자율은 무이자)
  - 신청기간 및 장소(기변동 가능)** : 가. 신청기간 : 2002. 1. 7(월) ~ 2002. 1. 11(금) 나. 신청장소 : 각대학 교학과 또는 학과사무실  
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2002년 1월 중순 경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 → 장학정보 → Login에 접속하여 "학자금기본정보"를 입력해야함(자세한 일정 및 사용방법은 추후 게시 예정)
  - 제출서류**
    - 신규신청자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신청서(소정양식)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시의 지역증 중 거주자에 한함)
      - 농어촌학자금용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 계속신청자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용자 신청서(소정양식)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 장학금의 관계**  
이중 수혜시 공급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 신청할 수 있음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 0 郡의 지역 : 전지역 해당
    - 0 市의 지역 : 읍, 면지역은 해당 동(洞)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0 특별시 및 광역시 : 전지역 제외 (단, 광역시에 편입된 군의 지역은 해당)
- \* 시(市)의 지역중 동(洞)에 주소를 둔 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만이 해당됨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야 함

## 2002학년도 1학기 국내 학점교류 시행안

2002학년도 1학기 국내 지대대학교와의 학점교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교류대학** : 한국의국어대학교 (학부과정)
  - 교류학기** : 2002학년도 1학기
  - 교류인정학점** : 최대 17학점
  - 신청지역** : 2002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인 4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학기당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제외함)
  - 신청서류**
    - 수학신청원(소정양식) 1부 - 한국의국어대학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 참조
    - 수학계획서(소정양식) 1부
    -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원서교부·접수** : 2002. 1. 11(금), 국제교류실
  - 기타사항**
    - 교류 해당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입해야 한다.
    - 교류학생은 한국의국어대학교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한국의국어대학교의 학사일정 및 절차에 따른다.
- \* 기타사항은 국제교류실(본관 2층, ☎ 02-2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 언어연구교육원 겨울특강

	영어회화	Writing & Speaking	일본어
<b>강의시간</b>	9:00 - 10:30 11:00 - 12:30 1:00 - 2:30 (Beginning only)	9:00 - 10:30 11:00 - 12:30	11:00 - 12:30
<b>정 원</b>	13 인	13 인	13 인
<b>강 사</b>	David Green, Curt Hutchison, Lezie Christensen	Mary-Anne, Darcy Shipman	김 영 희
<b>강의시간</b>	2차 : 2002년 1월 28일 - 2002년 2월 28일 (4주)		
<b>수 강 료</b>	7만원 (일반 8만원)	9만원 (일반 10만원)	7만원 (일반 8만원)
<b>강의시간</b>	2001년 1월 14일 (월)부터		
<b>강의시간</b>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해학관 1층) 전화:2260-3470/1 팩스:2260-3691 E-mail: today@dongguk.edu http://today.dongguk.ac.kr		

**★ 집 중!** 90분 강의 주 5일 수업  
100% 출석 시 다음 특강 20% 할인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2과목 동시 수강 1만원 할인

언어연구교육원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 학생복지관 신축공사 허가 불허

## 도시계획법상 허가 불가능 ... 학교측 완공일 준수 의사 밝혀

지난해부터 계획돼 온 학생복지관 건립이 도시계획법과 맞물린 데 따른 착공식 지연 등 몇몇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주캠퍼스는 시청의 공사 허가 전에 경북 도지사의 허가가 우선되어야 하는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본교는 지난해 4월 캠퍼스 확장을 위해 정문 앞 토지 매입을 계획했으며 해당 토지의 80%이상을 매입해야 확장이 가능하다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이 조정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계획법 상 '토지확장과 건물

신축'에 대한 허가는 양자 동시 허가가 불가능하다.

즉, 먼저 허가 신청을 낸 정문 앞 토지 매입이 마무리 된 후에야 학생복지관 신축에 대한 허가가 가능해 현재와 같은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본교는 토지 매입을 포기하고 건물 신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건물 신축 허가가 결정될 경우 학교측은 신입생 입관과 다가오는 학생복지관의 활용 필요성을 고려해 사전 계획된 2003년 2학기 개관을 다소 무리해서라도 실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미 입찰 공고 후 선택종합건설을 공사 업체로 선정할 상황"이라며 "더 이상 늦춰질 경우 예정된 공사 완료 시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후 실시될 공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교측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보다 긴밀히 추진해 매입을 이뤄냈다면 착공식 시기를 앞당기는 등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교는 하루 빨리 학생복지관 착공식을 이뤄내야 할 것이며 건설한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일련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진우 기자  
premier@mail.dongguk.ac.kr

함께 따라 체계적 공사 전가가 어렵게 되었다.

이를 놓고 학교측은 이미 설계 감리 업체를 선정할 상태이며 시설 관리팀 또한 특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가 후 실시될 공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학기 중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볼 때 암석 지대인 신축 부지에서의 공사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주변 건물과 강에의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교가 계획한 2003학년도 2학기 개관을 위해서는 기존 23개월 공사 예정을 18개월로 단축해야

# 총학선거 기호 1번 박준민조 당선

## 지지율 50.43%...1천 8백 3표 얻어

2002학년도 제18대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기호 1번 박준민(회계3)·이성락(사체3)조가 당선됐다.

지난 해 11월 27일 실시된 선거 투표 결과 총 유권자 수 8천3백73명(4학년 제외)의 유권자 수 6천2백95명(중 3천5백75명이 투표해 56.7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기호 1번 박준민·이성락조 1천8백3표(44.13%) △무효표 1백67표(4.67%) △분실 27표(0.77%)의 지지율을 보였다.

박준민 제18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밑바탕으로 변화의 중심에 서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진흥관에서 박준

민·이성락조가 65.3%의 지지율을, 원효관에서 윤성율·박강식조가 61.4%의 지지율을 보여 정후보가 소속한 단체 학생들에게 특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지난 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된 제22대 한대 학생회 선거는 총 유권자수 5백81명 중 3백58명이 참여해 61.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3백20표(89.4%) △반대 30표(8.4%) △무효 8표(2.2%)의 지지율로 김영수(본1)·윤진수(본1)조가 당선됐다.

또한 지난 해 11월 30일 진행된 제17대 의과대 학생회 선거의 경우 총 유권자 5백23명 중 3백95명이 투표해 75.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3백62표(91.6%) △반대 29표(7.3%) △무효 4표(1.1%)의 높은 지지율로 단독 입후보한 전효섭(본1)·김아성(본1)조가 당선됐다.

# 회전무대

## 일심동체

○...최근 학생회관 인근을 지나 는 학생들의 발길을 잡는 소리가 있었다는데.

알아본즉 전원 한 번에 교내 전 TV가 켜지거나 꺼지는 시스템에 의해 방학 일정 기간 동안 휴무중인 학생회관 식당의 TV가 켜져 있었다고.

더욱이 건물마다 개별 관리가 가능한 점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TV는 관리자의 손길을 아예 기대했다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부치면 낭비되고 흠여지면 절약된다(!)"

## 서바이벌

○...요즘 교내 복사기의 용도가 날이 갈수록 쇠퇴한다는데.

이야기건들 일부 열치없는 학생들이 각 건물 셀프복사기의 용지를 날마다 슬쩍한다고.

이로 인해 복사가 필요한 학생들은 용지 품은 복사기를 찾아 교내를 한없이 헤매인다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야 이놈의 자식아! 다 가져가~(!)"

## 손님(?)

○...200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괴이한 일이 벌어져 고학년 학생들은 당혹함을 감출 수 없었다는데.

내용인즉 3·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2학년 학생이 접속할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일어난 혼란이라고.

이로 인해 2학년 학생들이 3·4학년에 배분된 인원을 유린하며 추가 수강신청을 했다 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나는 신청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속수무책(?)

○...지난 성적 공시 및 정정 기간 동안 학생들은 애간장이 녹았다는데.

알아본즉 성적공시 및 정정 기간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성적을 게시하는 교수가 있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더욱이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연구실을 비우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성적 관련 사항을 조교에게 양도(?)한 교수도 있었다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그들만의 성적공시... 이것이 법이다(!)"

# 도서관 화장실 공사 쾌적한 환경 기대

시설관리팀(팀장=이철우)은 동계 방학 중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서관 개관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보수 공사는 배수관 교체 작업을 시작으로 남자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전자 센서, 양변기 등이 설치되며 여자화장실은 물소리 에티켓 벨, 간이 화장대 등이 설치된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존의 화장실보다 쾌적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추가 보수 공사가 있을 예정이다.



알권리는 어디에(?) ... 금강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 오른 편에 마련된 게시판이 학생복지관 신축공사로 인해 설치된 보호막에 가려져 있다. 방학기간 동안 생활관 학생들의 왕래가 드문게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공사인 만큼 게시판의 이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함민희 기자 llith@mail.dongguk.ac.kr

# 병원 연말행사 가져

경주병원(원장=정필현·정형의과)은 연말을 맞아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병원 내에서 각종 행사를 가졌다.

지난 26일의 경우 1층 로비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을 가졌으며, 27일에는 병원 내 약사전에서 우룡큰 스님 초청 송년 대법회를 병행했다.

또한 27일부터 29일까지 2층 현관에서는 1일 선착순 2백명의 만 60세 이상 경로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했다.

행사와 관련해 조희근 총무팀 계장은 "연말을 맞이해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 발표·전시회 개최

사회문화교육원(원장=김용택·사회복지학)은 오는 23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종합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진다.

발표회는 오후 5시부터 열리며 국악교실을 비롯한 강좌 개설 분야 소속 80여명의 회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선보이게 된다.

또한 전시회의 경우 3일간 서예, 산수화를 포함한 1백70여개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1년간 본 교육원 과정을 수료한 원생들이 준비한 실력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벤처, 각종 실적 인정 받아 올해 많은 사업 성과 기대돼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임재걸·컴퓨터학)가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는 올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대학벤처보육센터로 본교 센터를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벤처창업보육센터는 일정 지원금 지원을 약속 받은 상태이다.

이는 개소 후 각 입주 업체가 올린 다양한 실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입주 업체 중 인공지능보

술(대표=문대수)은 경영 전산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등록 인증(EERP)'을 받는 등 업계 영향력이 상당하며 앞으로 특허권 취득을 위한 제품 개발에 힘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주 과장은 "개소 후 2년 동안은 센터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부터는 사업성과를 올리기 위해 힘을 쏟는다. 특히 입주 업체 중 인공지능보

# 본교 제일은행 철수 새 학생증 제작 불가피 학교측 조흥은행 카드 준비 중

지난 12월 24일을 기해 본교 학생회관에 위치해 있던 제일은행이 철수함에 따라 학생증 재발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내 구조조정 관계로 철수하게 된 제일은행은 지난 98년 본교에 입주했다.

당시 입주 배경은 본교가 일산 병원 부지로 매입하고자 한 토지의 일부분이 제일은행 소유지인 관계로 은행측에서 본교 양 끝애 출장소 설치라는 소유지 매각 조건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입주 후 제일은행은 99년부터 본교의 학생증 겸용 직불카드제 시행에 동참해 학생증 발급관련 기계장비를 학교에 지원하기 시작했다으며 3년여동안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해왔다.

제일은행이 철수함에 따라 학교측은 2002학년도부터 조흥은행을 통해 학생증 겸용 직불카드를 새로 제작한다는 계획 아래 은행측과 상당한 의견 교환을 이뤄놓은 상황이며 재발급은 학생복지실(실장=서병수)에서 맡게 된다.

재발급과 관련해 학생복지실 권기숙 직원은 "학생증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해 당장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학생증을 재발급하고 있다"며 "2002학년도 신입생들

의 학생증은 현재의 도안을 유지해 학생과 학생증 이용 관련 업무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복지실측은 재학생 중 조흥은행 카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학생증으로 변경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제일은행 계좌는 경주역 부근 경주지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거리가 멀다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본교에 있던 제일은행 현금 지급기의 존재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는 등 은행 이용상의 불편이 노출됨에 따라 학생들의 제일은행 이용은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일은행 철수 과정을 살펴볼 때 본교 입주 은행은 은행의 손익을 고려하기 앞서 학생 또한 은행의 고객임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학교측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교내 대자보를 통해 학생증 재발급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숙지시켜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박)  
playmaker@mail.dongguk.ac.kr

## 2002년도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모집안내

지역의 벤처산업을 이끌어 갈 입주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관련법령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또는 확인가능한 창업 1년 이내인 기업
  - 예비 창업자
- 접수기간
  - : 2001. 12. 20 ~ 2002. 01. 20
- 신청서류
  - : 입주신청서(소정양식), 동반입주인력(종업원포함)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인감증명, 대표자 및 동반 입주인력 재산세 납부 증명원,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 부등본,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교부 및 접수처
  - 주소: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우) 780-714 벤처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실
  - 전화: 054-770-2472
  - 인터넷: http://ns.dgubvi.or.kr
  - E-Mail: vbi@mail.dongguk.ac.kr

**벤처창업보육센터**

## 학생복지위원회 토익특강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본교 학생들을 위하여 TOEIC 특강을 개최합니다. 특강은 현재 태대학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시사영어사의 안박사 TOEIC plus 교재를 가지고 대구·경북 지역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교재 : 안박사 TOEIC plus(개정판)
- 강사 : 박정미 선생  
(대구교대 줄, Canada Langara college 졸업, 시사영어사 전임 강사)
- 일시 : 2002. 01. 02~02. 22(8주)
- 장소 : 원효관 307호
- 시간 : 오후 2시~오후 4시(2시간)
- 수강료 : 5만원(학생증 제시 시 10% 할인)
- 접수처 : 구내서점
- 문의 전화 : 770-2734

\*선착순 100명 L/C Tape 무료 증정\*

**제17대 학생복지위원회**

## 동계방학 중 임대업소 영업단축 및 휴업 안내

2001학년도 동계방학 중 임대업소의 영업단축 및 휴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 음

- 영업단축
 

업소명	영업시간	업소명	영업시간
교직원식당	11:30~14:00	문구점	09:00~16:00
컴퓨터점	09:00~17:00	서점	09:00~15:00
도서관 매점·식당	08:30~19:30	화장품점	09:00~15:00
이·미용실	09:00~16:30	양화점	09:00~15:00
원효관 매점	09:00~15:00	진흥관 매점·식당	09:00~19:00
사진관	09:00~15:00	안경점	09:00~18:00
- 휴업
 

업소명	휴업기간	업소명	휴업기간
원효관 매점	2002. 01. 14~01. 18 2002. 02. 04~02. 08	사진관	2002. 01. 07~01. 11 2002. 02. 06~02. 08
서점	2002. 01. 07~01. 11 2002. 01. 28~02. 01	이·미용실	2001. 12. 24 2002. 01. 11
학생회관 식당	2001. 12. 16~2002. 02. 17	문구점	2002. 01. 14~01. 16

(1) 2001. 12. 17(월)~2002. 02.14(목)  
(2) 패스트푸드점 : 2001. 12. 17(월)~2002. 02. 28(목), 09:00~17:00  
(3) 학생회관 식당 : 2002. 02. 18(월)~2002. 03. 01(금), 10:00~18:00  
토요일 운영시간 : 10:00~15:00

# 2002 대선, 대학생의 선택은?

## 본교생 488명 대선관련 설문조사 ... 정몽준 지지도 1위, 노무현·이인제 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2001학년도 2학기 서울캠 재학생 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표본구성

전체 남 56%(276명) 여 44%(212명)  
불교대 1.6% 문과대 9.2% 이과대 6.8%  
법대 3.5% 사과대 9.8% 경영대 10.7%  
생자대 4.3% 공대 14.8% 정산대 9.8%  
사범대 8.4% 예술대 4.5% 아인강좌 16.6%

새해가 밝았다. 2002년 정치권 최대의 화두는 단연 대통령 선거일 것이다. 이에 본사 사회부는 본교생 488명을 대상으로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 조사는 대개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누가 대통령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방식은 논리적 허점이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인을 한 사람씩 제시하면서 인지도, 지지도를 묻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같은 방식은 미국에서도 대통령 후보 확정 이전 가상대결 형식의 조사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투표성향과 정치인 지지도, 지지 정당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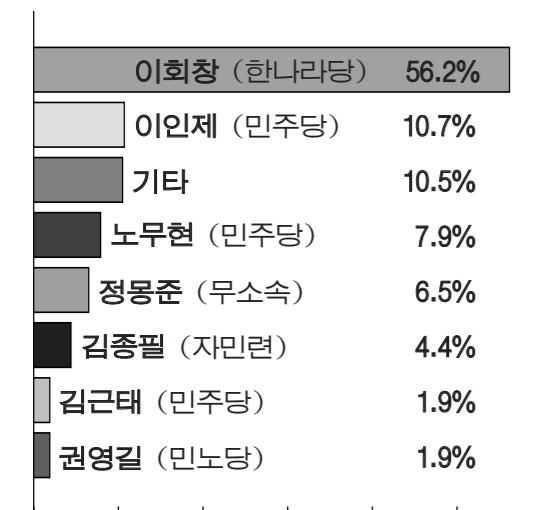
▶ 지지하는 정치인? (5점 만점)

2002년, 이제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오는 12월 열릴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다. 그렇다면 올해 대선에서 본교생들은 어떤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게 될 것인가.

11개월 뒤 학생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정치인 지지도 조사결과 다소 의외의 인물이 1위를 차지했다. 다른 언론사들의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를 보면 이회창, 이인제, 노무현이 '빅3'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수위에 오른 인물은 정몽준 의원이었다. 5점 척도의 평가 결과 정 의원은 평균 점수 2.42를 기록해 각각 2.34와 2.31에 머문 노무현, 이인제 최고위원을 제치고 가장 지지도가 높은 정치인으로 꼽혔다. 아직까지 대선 출마의사를 명확하게 내비치지 않고 있지만,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추측에 설득력을 더해준 결과라 볼 수 있다.

### 지지도 1위의 이유는

본교생들의 '정몽준 신드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조사 기간이 월드컵 조 추첨 행사와 겹쳐 일어난 축구 열풍에 힘입어 월드컵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까지 덩달아 지지도가 올라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가 정치



▶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인하면서도 국민의 비난을 한몸에 받는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정치권과 거리가 먼 스포츠 의교를 벌여 기존 정치인과는 차별된 이미지를 창출한 것을 원인으로 찾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그를 지지하는 이유 중 '정치인답지 않은 신선한 이미지'라는 답변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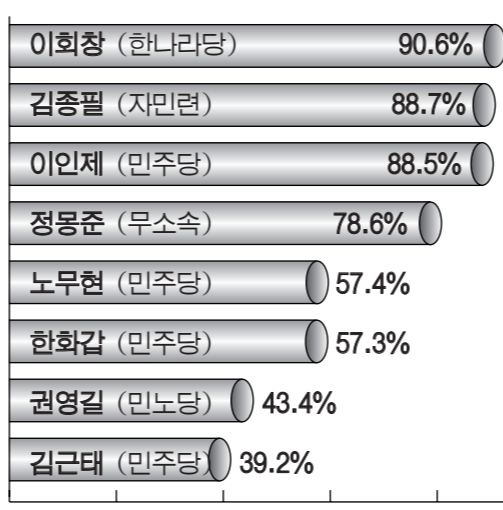
'정치인 000을(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90.6%의 인지도로 1위에 올랐으며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88.7%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지지도 평가에서 6위에 그쳤으며, 김 총재도 평점 1.63의 지지도를 보이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 지지정당 "없다" 73.7%

반면 인지도 조사에서 각각 7, 8위에 그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민주당 소장파의 '쇄신 파동'을 주도한 김근태 최고위원이 지지도 조사에서 4, 5위에 오르는 등 학생들은 진보·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에게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지도 1위인 정 의원의 점수조차 평균(3점)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볼 때 대다수 학생들은 올 대선에서 한 표를 던질 정치인을 정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것과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무관심이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선호도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없다'는 대답이 무려 73.7%에 달했고, 민주당만이 12.9%로 유일하게 10%를 넘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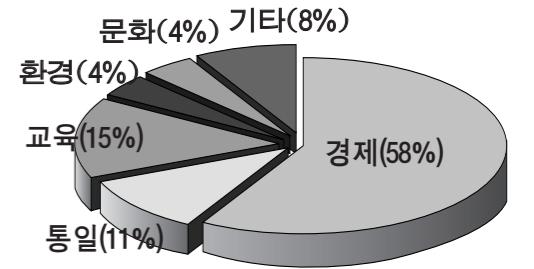


▶정치인 000을(를) 아십니까?

감지됐다.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와 같은 적극적인 선거참여운동 단체가 발족해 교육법관련 활동 등 대학생이 주목해야 할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타지역 유학생들을 위한 학내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 투표연령 낮추기 운동도 함께 진행해 대학생 및 청년유권자의 힘을 알렸다. 때문에 당시 후보자들도 종전과 달리 젊은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제시하는 등 '개혁' 이미지를 갖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방선거와 대선 등 양대선거가 있는 올해, 국민의 약 25%인 20대의 주권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 젊은 세대가 외면하면 개혁은 결국 그만큼 멀어진다. 지금부터 대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후보자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 "경제대통령을 바란다" 58.2%

향후 가시화될 대선후보가 학생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될 듯 하다. 후보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 분야가 5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뒤이어 교육(14.8%), 통일(10.5%) 분야가 차례대로 순위를 이었다.

이는 현 정부가 IMF 이후 계속된 경제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점 척도로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경제, 환경 등 대부분의 분야가 '못했다' (2점)와 '보통' (3점)사이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0점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분야별로 편차가 조금씩 있다. 통일 분야(3.43)는 유일하게 '보통' (3점)을 넘어 남북관계가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교원 성과급제, 교대 학점제 논란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교육 분야(1.92)는 2점도 넘지 못했다. 이밖에 노동(2.17), 경제(2.45) 분야의 차례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의욕적인 출발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김대중 정부. 16대 차기 대통령은 몇 년 후 이 같은 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해답은 오는 12월,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정치에 대해 불신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대학생 유권자들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 민주노동당 박홍순 기획위원장을 만나

## "진보세력 아우르는 신당 만들 것"



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노동당 박홍순 기획위원장을 만나 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위한 올해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그동안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저조한 득표율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 언론에서 진보정당 소식을 다루는 일이 적어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았던 것이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진보진영이 선거 때마다 분열된 모습을 보여며 공동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반성해야 할 점이다.

작년 10월 재·보선 때도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기 후보를 내 진보진영이 두 쪽으로 나

뉘어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진보진영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진보'를 표방하는 여러 단체들과 또다른 진보정당인 사회당과의 통합을 통한 재창당을 계획하고 있다. 재창당 문제로 합당추진 초기 사회당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사회당은 이달 초 중앙위원회를 열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합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했다. 전국연합도 함께 할 의사를 밝혔고 많은 사회단체들과도 논의 중에 있다.

- 양대 선거를 전망한다면.  
= 올해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보수 양당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3김'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진보세력에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통합된 진보세력은 우선 지방선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진보세력의 단일 후보는 이전과 달리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충분한 요인이 되어 진보정당이 양대선거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 개혁 원한다면 적극적 참여를

### 전체 유권자 1/4이 20대 ... 실제 영향력은 미약

정치하는 아저씨를 맨날 싸워요. 현명 두명 싸우다가 결국 개편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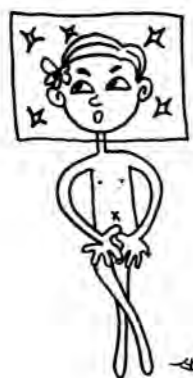
정치에 대한 신세대 대부분의 반응은 어느 인기 그룹의 랩 가사처럼 냉담하다. 환멸과 불신을 넘어서 이제는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 20대 유권자는 전체의 24.7%. 30대 유권자까지 합치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숫자가 된다. 이쯤 되면 당선여부를 좌우할 힘이랄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단지 통계수치일 뿐 실전에서는 영향

력을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청년연합회 전준호 사무처장은 "젊은 세대의 참여가 저조하다보니 후보자들의 공약은 대부분 투표율이 높은 40-50대를 향해 있으며 개혁을 표방하던 이도 막상 선거철이 되면 중장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고 지적한다.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오히려 낡은 정치판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그러나 2000년 4·13총선은 사뭇 다른 움직임이

## 동약로

### 주객전도



"어! 처음 보는 상투리에잖아?"  
"화려하긴 한데 얼마나 필요할지 의문이군."  
방학 중 교내 토익 특강으로 수강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새로운 시설로 인해 환해진 1층 로비에서 두 수강생들은 시설에 대한 평가가 한창이다.

경주캠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1층 로비 상투리를 비롯한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 열람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의자와 책상은 낡았네!"  
"값비싼 상투리에보다 이런 기본시설의 점검이 시급한 것 아니냐?"

도서관 일반 출입자들은 기본 시설 부족, 학습을 방해하는 소음 방지 시설 미비 등에 대한 환경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학기 도서관 컴퓨터실에서 수업이 실시되면서 수업내용이 고스란히 인근 열람실까지 들려 학습을 흐트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에 따라 도서관 컴퓨터실에서의 수업을 재고하라는 여론이 거센데

것이 사실이다.  
또한 1층 정보검색실 컴퓨터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들은 3층 컴퓨터실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도서관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대표적인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설의 보완 및 교체가 우선 되어야 한다.

학교측은 상투리에의 설치가 면학 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교 도서관과 같이 소음방지 등 기본 시설이 열악한 공간에서의 학습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학교 관계자들은 도서관의 주인인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시적으로 화려한 시설이 아닌 기본적인 학습 여건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형진우 기자  
premier@mail.dongguk.ac.kr

2002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논단

‘남남갈등’ 해소와 북미대화 재개가 해법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향한 전진은 한반도 안팎에서 나타난 장애물에 걸려 주춤거렸으며 통일에 대한 희망은 분단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미국 공화당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발표하면서 북미관계는 긴장국면으로 들어갔고 남북관계도 경색됐다. 2001년 3월의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못했으며 오히려 남북장관급 회담을 연기하도록 만들었다. 남한의 외교역량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됐다.

뒷걸음 친 남북관계

남한 사회 내부의 이념갈등은 포용정책의 기반을 흔들며 남북관계를 위협할 정도였다. 더구나 김대중 정부는 남한의 경기침체로 정국수단의 선택에서 제약을 받았다. 남한 정부가 약속한 전력지원은 남한 내부의 갈등과 미국과의 합의 지연 때문에 실현될 수 없었다. 2001년 8월 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남한에서 이념적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자 북한지도부의 남한 정부

에 대한 기대는 더욱 위축되었다.

북미관계 악화와 남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북한이 어렵게 선택한 대외정책의 추진 입장을 뒤엎리게 한 중대한 사태였다. 북한은 2000년 초부터 국제사회 진급을 위해 EU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개선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자신의 대외정책 변화를 극적인 방식으로 대외에 천명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사교방식의 혁신에 대한 강조는 북한이 국가전략 전반에 걸쳐 개방과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모든 노력들이 북미간 합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미국의 강경노선과 남한 내부의 갈등이라는 압축에 걸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EU 국가들과 관계를 확대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에 대응하여 중·러와 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강요하는 테러,반테러의 이분법적 세계질서와 반테러전쟁의 개시는 미국으로부터 테러국가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입지를 극도로 좁혀 놓았다. 9월 중순 재개된 남북 회담 역시 11월 중순 6차 장관급 회담을 끝으로 남한의 비상경계 태세가 원인이 되어 아무런 합의도 없이 끝났다.

되돌아보면 2001년은 고되었지만 중요한 교훈을 준 한 해였다. 우리는 분단의 극복이 우리의 의식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북은 패권국가 미국이 한반도에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객관적 조건과 남북 당사자간 화해 협력의 한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남북관계가 반복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접촉을 통해 남북간에 어느 정도 신뢰와 이해가 쌓였음을 보여 준다. 분명 이러한 상호인식의 변화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

부정적 분위기 속 ‘희망’ 모색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부정적 요인들이 지배적이지만, 2002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반드시 비관적이지는 않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이 확산되리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개의 반테러 국제협약에 가입한 북한의 태도는 북미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예상되는 남한의 비상경계 태세 완화로 치는 정부차원의 남북대화가 재개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가



박순성 사회과학대 북한학과 교수

우선 남한은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념논쟁이 생산적인 정책논쟁으로 전환되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도록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남한의 노력만으로는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없다. 남북대화의 재개와 협력의 증진은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기본 조건이다. 끝으로,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응한 유연한 대외정책을 통해 개방 개혁에 필요한 외부환경을 만들려는 전략이 북한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교수임용 개정안 발표

재임용제 개선에 가린 계약제 강행

개정안 통과 코 앞 ... 악용 가능성 우려돼

지나해는 다른 어떤 때보다 교육부문의 혼란이 심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대학교수 임용 개정안으로 이어져 교수사회에도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지난 11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수임용·재임용 개선방안과 계약제 실시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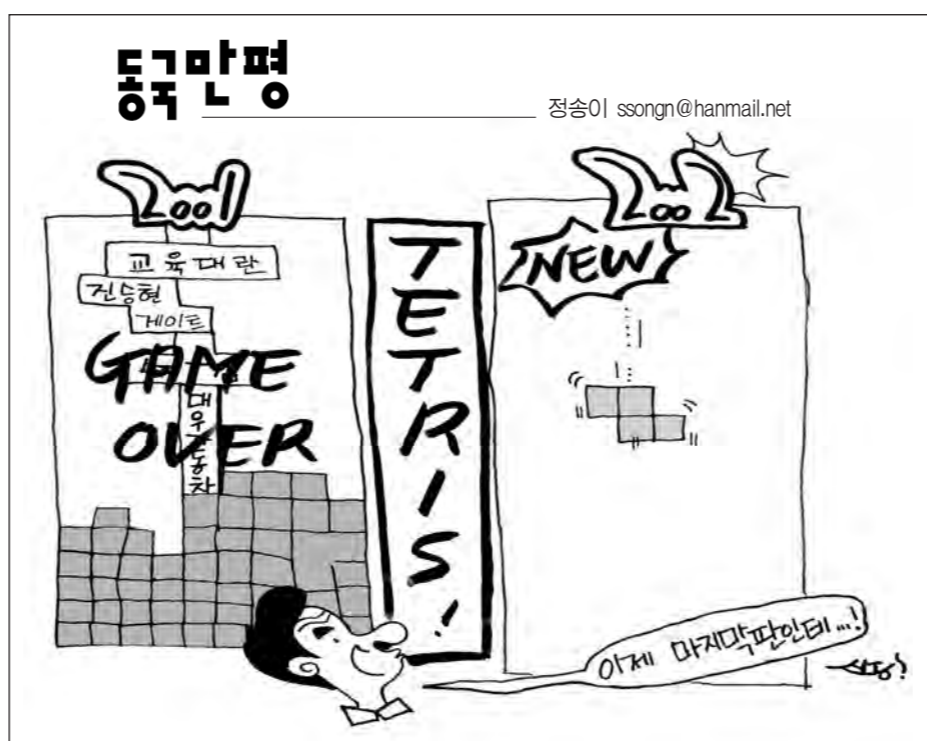
개정안을 살펴보면 학교는 재임용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반드시 정해야 하고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교수 채용시 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지난해 3월 본교 법과대 심회기 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뚜렷한 이유조차 들지 못한 채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본교 송일호(경제학) 교수는 “명시된 구제방안, 기준 마련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

가했다. 그러나 정작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올해부터 신규교수는 모두 계약제로 임용되어야 한다. 일정 근무기간이 지나면 승진 및 정년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보장되었던 교간의 기간제(재임용제)와는 달리 계약제는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몇 년 전에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통해 올해부터 교수계약·연봉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단계로 신규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교수 계약·연봉제 논란은 이제 보다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원대 김치원(사학) 교수는 “계약제가 실시된다면 재계약에서 실패하는 일은 더 이상 이슈거리가 될 수 없을 만큼 흔한 일이 될 것”이라며 “재임용제보다 악용될 소지가 훨씬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구제방안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또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지대 정대화(정치학) 교수는 “개정안의 구제절차는 계약제에서는 전혀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끊이지 않던 계약제에 대한 신분불안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정안은 이제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비교적 개혁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계약제가 아닌 재임용제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설
성찰과 화합으로 발전 이끌어야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신문, 방송에서는 그 해의 10대 뉴스를 발표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최대 뉴스를 꼽으려면 단연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일 것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테러 공격은 초강대국 미국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시대 '천민 자본주의'에 대한 적신희인 셈이다. 어디 '전쟁'이 이뿐이겠는가.
국내 역시 전쟁 아닌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 IMF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바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진통을 낳았다. 수위를 넘어선 노동탄압은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고 교육 부문에서 사학재단비리,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발전은커녕 퇴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또한 각종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권다툼과 당리당략에 눈먼 정치인들의 행태는 비난조차 아까울 지경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가운데 분교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동국 사이버 대학이 설립승인을 앞두고 유보되는 하연, 총학생회 과정보다 불거진 일산병원 개원시기와 관련한 논란, 법인사무처 직원의 공공회계사건 등은 개교 100주년을 눈앞에 둔 동국의 미래에 많은 숙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임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월드컵을 비롯해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다. 분교도 총장선출과 제2도서관 신축, 일산병원 개원 등의 큰 일들을 앞두고 있다. 재단 학교 동문 교수 직원 학생 등 동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새해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난제 앞에서 집단기치를 넘어서서 '상상할 수 있는 동국의 미래'를 위해서 신뢰와 이해 속에 개혁과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형평성 논리보다 중요한 '수업권'
학기초 학생들 사이에서 불멘소리로 터져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업'에 관련한 부분이다. 수강신청을 한 학생의 의도와는 달리 행정상의 이유로 담당 교수가 교체되거나 수업이 분반되는 현상이 잦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사회학과 강경구 교수를 위한 직위해제안이 재단에 상정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교수를 형평성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서 정작 존중되어야 할 학생들의 수업권은 배제된 듯 하다. 이달말 열리는 재단 이사회에서 직위해제안이 통과되면, 이미 강교수의 수업을 신청한 100여명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표를 수정해야 하는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위해제에 대해 학교측은 그동안 형사사건에 기소된 교수는 모두 직위해제돼 왔다는 '전례'를 적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한 국외대 이장희 교수나 경상대 장상환 교수는 국가보안법으로 계류중인 상태에서 교수직을 유지해왔다.
이렇듯 학문적 소신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당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학교측은 형평성 논리만을 내세우기 보다 탄력적인 법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대학헌장 제20조(교육과정의 연구) 1항을 보면 '대학은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에게 최선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무연구위원회를 둔다'는 문구가 있다. 대학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올해 강교수의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또다시 수업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재단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 발전기금
11백만원 이원(의과대학 교수), 권태환(의과대학 교수), 강복남(신도)
50만원 김윤정(신도), 김복수(영상정보통신대학원)
30만원 이재범(교직원), 조효일(영상정보통신대학원)
20만 최홍영(영상정보통신대학원), 김도영(영상정보통신대학원), 남삼숙(영상정보통신대학원), 박문선(영상정보통신대학원), 강옥재(영상정보통신대학원)
10만원 유옥순(신도), 이명
1만원 전영태(신도), 한윤순(신도)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1억원 종원스님(안양암 주지), 최해숙(신도), 김진호(불교대학원), 최미경(신도)
7천만원 진금섭(신도)
6천만원 이재숙(신도)
5천1백80만원 불심총합원
4천5백만원 한국RF
3천5백만원 오복원스님(동국학원이사장)
3천만원 국제정보대학원7기, 자원스님
2천4백만원 조성부(불교문화대학원)
2천만원 안효연(동문)
2천만원 이명자(신도)
1천5백만원 경화상사
1천2백만원 신화서(동문), 김근찬(동문)
1천1백50만원 도원스님(파계사 주지)
1천50만2천63원 ARS입금액
1천만원 황정일(일반대학원), 곽동길(동문), 손창우(동문), 김운태(동문), 김의근(동문), 김종정(일반대학원), 박일영(동문), 박창조(동문), 배효상(동문), 안종찬(동문), 이부태(동문), 이수경(동문), 이승철(동문), 이원정(동문), 윤영해(불교학과 교수), 황영태(불교문화대학원), 권재남(동문), 윤문사(사회문화, 일반스님), 이병희(신도), 이상희(신도), 김갑수(신도), 권학관(동문), 부산재비선교회(신도), 김우재(신도), 석해춘(동문)
99백만원 김두선(선학과 교수)
69백만원 김도균(의과대학 교수), 김종필(교수), 이상권(의과대학 교수)
59백만원 김복순(국사학과 교수), 하이진(신도), 임지현(신도), 박공스님(광명사), 도성스님(경성암), 다정스님(백양사 주지), 보흥스님(대성사), 강상태(불교문화대학원)
49백만원 천현암법회, 정혜사안인연합회
39백만원 자매법회(신도)
39백만원 틴스님(경성암 주지), 반창규(일반대학원), 오창영(일반대학원), 이철웅(일반대학원), 김효정(일반대학원), 허보현성(신도), 김경숙(신도), 한국불교승가회중앙회, 박옥화(신도), 전광식(행정대학원), 임치규(행정대학원), 노기문(행정대학원), 김준영(행정대학원), 박순자(행정대학원), 김강욱(연극학과 교수), 이종욱(교육대학원), 권영두(교육대학원), 수중스님, 진성스님, 이철호(일반대학원), 김영보(불교문화대학원)
29백70만원 현소환(신도)
29백30만원 박진서(신도)
29백만원 이병훈(신도), 권윤(행정대학원), 김근우(교수), 김형준(동문), 사은호(동문), 이상택(동문), 이영태(동문), 정재현(동문), 안재섭(지리교육과 교수), 김홍준(의과대학 교수), 김대근(동문), 최영성(동문), 장규태(의과대학 교수), 신동필(의과대학 교수), 김수영(신도), 김성진(진단방사선과 교수), 이인구(한의학대학원), 이경우(의과대학 교수), 한철호(역사교육과 교수), 이우우(신도), 이상영(행정대학원), 세경

- 정사암연합회, 정정선(교육대학원), 법안정사, 성진스님(극락안 주지), 고길동(불교문화대학원), 오인순(불교문화대학원), 우선숙(불교문화대학원), 허정화(불교문화대학원), 오용용(불교문화대학원), 윤상규(동문), 하미경(동문), 오경환(동문), 박순일(동문), 동문문화회(동문), 달오스님(불교문화대학원), 이병희(불교문화대학원)
19960219천원 조성우(경영대학원), 김시현(경영대학원), 지득호(경영대학원), 양연준(경영대학원), 김종철(경영대학원), 오영일(경영대학원), 박봉식(경영대학원), 오재필(경영대학원), 홍상근(경영대학원), 김상길(경영대학원), 김명태(경영대학원)
19960219천원 이영순(신도), 성환일(신도)
19962218천원 변승현(경영대학원)
1996202만원 고병원(정형외과 교수)
1996102만원 정홍사신도회(신도)
1996713천원 정순환(경영대학원)
199641만원 정옥숙(신도)
199621만원 김선호(신도), 김상유(교직원), 변승재(교직원), 이재우(교직원), 임종민(교직원)
199611만원 열기원(전자공학 교수), 탁병원(행정대학원), 장병근(법학과 교수), 이승호(산업기술환경 대학원), 안문정보대학원, 구병수(한의학대학원), 김희정(행정대학원), 김성철(불교학과 교수), 이방진(신도), 최병운(동문), 여경호(동문), 남효섭(동문), 박대용(동문), 허남윤(영상정보통신 대학원), 김재원(신도), 공배선(신도), 김순자(신도), 공갑수, 관옥현(신도), 박상진(신도), 박상우(신도), 박준원(신도), 이임조(산업기술환경 대학원), 이우진(산업기술환경 대학원), 박희영(산업기술환경 대학원), 신호철(신도), 김태우(신도), 한연수(신도), 박복순(신도), 김광순(신도), 정병윤(신도), 김병현(교연사 주지), 김명순(신도), 정심환(동문), 김준기(신도), 김기선(신도), 이정욱(신도), 경영대학원3기동창회, 오문재(신도), 고병준(신도), 고민준(신도), 박성종(신도), 이재선(신도), 강영진(신도), 박규훈(신도), 김영애(신도), 오익환(신도), 김승욱(신도), 이대성(신도), 윤문섭(신도), 이한(의과대학 교수), 권태환(의과대학 교수), 지명스님, 최영근(광교학과 교수), 정광희, 정유미(교직원), 이일부, 조성영(신도), 조유진(신도), 최희옥(신도), 박혜스님(법학사

- 주지), 선근스님(정각사 주지), 자용스님(경성암), 김인옥, 덕수스님(경성암), 윤영현(신도), 윤재선(신도), 윤문선(신도), 최홍순(신도), 최홍영(신도), 박승자(신도), 최오(신도), 이종은(행정대학원), 조규학(행정대학원), 김선욱(행정대학원), 정윤관(동문), 자용스님(수국사), 정담스님, 이원재(신도), 허현(불교대학원), 이택수(신도), 송일스님(관음사 주지), 하종화(신도), 유민덕화(신도), 윤남희(신도), 송인강(신도), 민정순(신도), 조병욱(신도), 보리사장도회, 이광호(교육대학원), 차영식(교육대학원), 임원희(신도), 윤승규(신도), 권용희(신도), 민형숙(신도), 문명길(신도), 김선자(신도), 차진숙(신도), 조계사제주모임, 상우스님(동사), 성시화(신도), 문형현(신도), 이희봉(신도), 손복출(신도), 이일선(신도), 이기팔(신도), 이경자(신도), 노창우(신도), 김재식(신도), 김장수(신도), 장상준(신도), 김장현(신도), 이세욱(신도), 법문스님(보현사), 이소자(신도), 김보희(신도), 홍정희(신도), 이승호(신도), 이미연(신도), 임원태(신도), 김용우(신도), 손종식(신도), 백나현(신도), 박주원(불교문화대학원), 김광식(불교문화대학원), 권희희(불교문화대학원), 노은권(신도), 김원석(동도사 양산보교원), 최규봉, 윤교인(신도), 이종진(신도), 정덕스님(인파선원), 주상욱(신도), 주영욱(신도), 주태욱(신도), 김구태(신도), 안필호(신도), 김형숙(신도), 송재현(불교문화대학원), 김기순(신도), 이상훈(신도), 김기산(신도), 김기춘(신도), 김기수(신도), 김성환(신도), 우종민(신도), 김영민(신도), 조도선(신도), 탁형기(신도), 박윤정(산업기술환경 대학원)
177만원 강병근(신도)
172만원 용역사신도일동
170만원 무주상원심회, 순연수(신도)
160만원 김효영(신도), 이경화(신도), 정명순, 이재우, 이흥연(신도), 장영재(신도)
150만원 김대진(체육교육과 교수), 염기문(교직원), 전순남, 유민희, 임무수(교육대학원), 문찬호(동문), 민부영(신도), 송화사, 김광일(행정대학원), 이승훈(신도), 최규형(동문), 전경배(신도), 서승열, 이진영(산업기술환경 대학원), 권혁일(신도), 이재영(신도), 김복희(신도), 이병희(불교문화대학원), 성형철(산업기술환경 대학원)
145만원 전용숙(신도)
142만원 컴퓨터연수원가자
140만원 김세경(신도), 조유진(신도)
131만5천원 김재선(교직원)
130만원 이재형(일반대학원), 홍문자(신도), 김용원, 추향선(스님), 이봉근(신도), 여희경, 이광욱(신도), 이태환, 이순우, 신안범(신도), 마기영(신도), 김금분(신도), 이윤희(불교문화대학원), 김보성(사문사), 이우연(동문), 이수광(신도), 이은상

- 128만13천500원 양보식(동문)
124만원 유용태(신도), 최광수(신도)
120만원 권기선(신도), 김계천(신도), 박정희(신도), 조강애, 이강숙(신도), 김향성(신도), 허진욱(신도), 이노비(신도), 유운자, 박정근, 이용호(신도), 곽동명(신도), 보은희(신도), 최병주, 김택준(신도), 조홍호(신도), 김옥진(신도), 윤문선(신도), 배순선, 이영무(동문), 정영애(불교문화대학원), 이재철(신도), 김근욱(신도)
117만원 박민정(신도)
118만원 이흥선(신도)
117만원 박민정(신도)
116만원 문성환(신도), 김영복(신도), 경동종합학강
114만원 오근석, 홍순애(신도), 전성수(신도), 이창수(신도)
112만원 김범수(신도), 유대화영(신도), 서영근(신도), 황창오(스님), 황성준(학부모), 양승규(신도), 만태병(신도)
1112천원 김철석(교직원)
1110원 이명
1102천원 이명자(신도)
110만원 이형열(교직원), 지성스님(육천사), 박용수(행정대학원), 박국애(신도), 윤수연(동문), 최광의(동문), 김철조(동문), 박승호(동문), 황연수(산업기술환경 대학원), 신승자(신도), 민두희(신도), 이복희(신도), 이미주(신도), 김길호(신도), 윤진영(신도), 박기춘(신도), 김영우(신도), 김기순(신도), 김순래(신도), 우문숙(신도), 홍진경(학부생), 오숙자(신도), 강병기(신도), 조권형(신도), 최관스님, 임정영(신도), 하인순(신도), 손금숙(신도), 이상분(신도), 이상수(신도), 신옥선(신도), 정정숙, 유아, 문석근(신도), 서정옥(신도), 묘진스님(정평사), 김윤희(신도), 송순호(신도), 이경서(신도), 이재국(신도), 홍성민, 이경우(신도), 김복순, 김보희(신도), 김문옥, 이태훈(신도), 배성순(신도), 박재민(신도), 박만주, 최우정(신도), 한부성(신도), 김천우, 유재필, 김중인(신도), 최춘남(신도), 용운인(신도), 정종성(신도), 변영태(신도), 조성남(신도), 이경일(신도), 최재희(신도), 이복우영(신도), 최성혁(신도), 박만중, 박문수영, 정우주영, 권해수, 오경태(신도), 장사영(신도), 구달모(신도), 이상훈, 이창열, 이진태, 유정자(신도), 김재수(학원사 주지), 박찬진(신도), 가락전자, 문현주(신도), 김경희(신도), 조문경, 장기철(불교문화대학원), 더구나보살, 승가사, 김옥이, 권영경(신도), 박진수(신도), 김남철(신도), 심동현(신도), 이수용(신도), 임병덕(신도), 김성중, 진환(신도), 김효숙(신도), 권민빌딩, 김재환(신도), 이원해(스님), 이명 5명
199만원 김용재(신도), 이명
189만원 만윤민(신도), 박혜진(신도), 이호범(신도)
179만원 권학재(동문), 안순남(신도), 김묘란(신도), 황성문(신



# 교육개혁우수대학 선정 · 학제개편 긍정 평가 변화와 함께 운영상 지속적 보완과 개선 필요

본사는 2001년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2002년 새해를 전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체험한 기자들의 담화와 함께 독자 여러분도 앞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지난 한 해 동안 학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동국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바쁘게 뛰 어다니신 전일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올 한해 일어났던 큰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학내는 강정구 교수가 만경대 방문록 파문으로 구속된 사건을 비롯해 서울캠 총학생회는 4년 만에 경선을 치렀고, 경주캠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신망을 잃고 성과 없는 한해를 보냈 습니다.

학외에서는 언론개혁으로 정부와 언론, 여 아가 활발하게 대립했으며,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활기를 띠었던 남북관계는 부시정부 등 장 이후 진전 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문학계에서는 '이문열 책반환 장례식' 이후 문학권력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습니다.

## 변화하는 학생회 필요

▲올해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는 4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됐습니다. 후보자가 없이 찬반투표로 진행됐던 지난 해와 달리 자주 한총연계열과 좌파계열이 결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웠습니 다. 그러나 저조한 투표율은 학생들의 무관심이 여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본사는 투표를 저조 한 학생회 위기 극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거기간 3회에 걸친 기획으로 선거 쟁점 사안들을 집중 조명 · 분석하고 학생회의 위기와 대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현 학생회 체제 운영에 대한 변화와 전자투표제 · 온라인 게시판 등 사이버를 이용한 학생 참여공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보다 본질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학생들이 학생회에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선거에서 타 대학이 '50%의 텃'에서 나오기 위해 땀을 빼고 있을 때 울산대는 학생들이



'작지만 큰 권리 찾기'라는 운동을 펼쳐 올해 선거에서 70%를 상회하는 높은 투표 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학생회의 위기가 학생회 운영 주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불평과 요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캠 총학생회는 학기초 등록금 투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총학 수첩 대금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학생들에게 신망을 잃었습니다. 결국 총학은 한해 모든 사업을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아무런 성과 없이 진행했습니다. 계속되는 총학생회 불신문제가 내년에도 난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교육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 습니다. 우선, 다양한 학문을 통합한 교과 과목 개설과 심층적 강의를 위한 팀티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5월말부터 연 구에 돌입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관련 과목을 2002 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보완과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 히 96년부터 실시된 모집단위 광역화가 야기한 전공편중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올해도 나타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올해 문과대를 인문

## 교육 개혁

▲분교는 97, 98, 99년에 이어 올해도 교육개혁우수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공과 대와 정보산업대의 교양과정인 기초 과학 및 수학(BSM)과 공학교육인증제(ABEEK)를 인정받았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 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공학교육프로그램은 지난 11월 한국공학 교육인증으로부터 국내최초로 공학교육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인증 획득은 앞으로 공대 · 정신대 학생들에게 교육과 취업에 모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교육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 습니다. 우선, 다양한 학문을 통합한 교과 과목 개설과 심층적 강의를 위한 팀티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5월말부터 연 구에 돌입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관련 과목을 2002 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보완과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 히 96년부터 실시된 모집단위 광역화가 야기한 전공편중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올해도 나타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올해 문과대를 인문

학부와 분리하고 일부 단과대가 모집단위를 내년부터 분할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 도서관 완공

▲오는 8월 신축 도서관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축 도서관은 그동안 학내에서 제기해오던 공간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개 단과대 와 야간교과가 몰려있는 동국관과 모자란 동아리방 문제 해결이 학생들의 주 관심 사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과대나 동아리 등 공간을 필요 로 하는 곳이 많아 자칫 공간문제로 집 단 이기주의가 나타나지 않기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생회와 학교측이 도서관 공간배치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언론 개혁

▲일부 지식인들과 시민단체가 진행한 조 · 중 · 동 보수언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올 초부터 안타조선 지식인 · 대학생선언 등으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 히 대학생들의 안타조선운동이 활발히 진 행됐습니다. 전국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 참 석 자

- ◇서울캠퍼스  
김현정 대학 1차장  
김도영 대학 3차장  
우정현 사회 차장  
이성희 문화 차장  
이수경 학술 차장  
김해진 기획 1차장  
손상민 기획 2차장 겸 여론생활차장  
엄태규 사진 차장

- ◇경주캠퍼스  
형진우 대학 2차장

◇일 시 : 2001년 12월 21일 (오후 4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습니다. 또한 금강산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과 같은 사건 이 계속됐습니다. 이후 남북은 겨우 제6차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으나 9.11 미 테러사 건으로 남북이 테러대비 비상경계 태세를 갖춘 것을 북측이 문제삼아 결국 합의점 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민간통일운동 진영도 금강산에서 5·1 절 공동기념행사를 진행하고 8·15 평양 축전 때는 방문단을 구성해 북측 평양축 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축 전에 참가자들이 돌출행동을 했다는 이유 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 방문단이 구 속되는 사건을 거치면서 민간통일운동 진 영은 급격히 힘을 잃고 하반기 성과를 얻 지 못했습니다.

## 문학권력 논쟁

▲올해 '이문열 책반환 장례식'으로 문 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 었습니다. 올해 문학권력논쟁은 여러 일들 을 거치면서 반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당 서정주 티격 투격 이후 그의 친일행적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고, 언론문제와 관련된 이문열 논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벌어졌 던 이문열 책반환 장례식은 문학권력논쟁 이 우리 생활과 그다지 먼 주제가 아니라 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문학권력 논쟁은 이 전까지 권력의 중심에 있던 지식인들에 대충이 단지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 실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논쟁을 통해 그동안 인문학이 가졌던 폐 쇄성의 문제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한 좋 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아직 마무 리되지 못한 사건이 많습니다. 또한 올해도 앞 에서 언급한 많은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특히 등록금 문제가 올해도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 일 것입니다. 국립대발전계획으로 국립대가 등록금을 5% 인상하고, 사립대들도 해마다 등 록금을 국립대에 연동해 올린다는 점에 비해 이 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 예 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학외에서 벌어 지는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 등으로 비변 한해 가 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2002년 한해도 동국인들의 눈 과 귀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리=김현정 기자  
telleme@dongguk.edu

## 7면에서 이어짐

도, 황배영(신도), 이창식(신도), 익명  
△62원원 임수길(학부생), 정혜연(동문), 강경남(신도), 이순욱 (신도), 조동철(신도), 문정윤(신도), 황복희(신도), 박영희, 강삼갑, 서인철(신도), 박정호(신도), 최정열(신도)  
△52원원 김영수(교직원), 석광훈(교직원), 이범진(동문), 김영부 (교직원), 박승복(동문), 서인재(신도), 장순태(신도), 김권일 (신도), 서형준(스님), 김경복(신도), 김순재(신도), 김지순 (신도), 정정훈(신도), 임규식(신도), 최문길(신도), 정자사, 정봉수(신도), 홍병희(신도), 홍익인(신도), 신영욱(신도), 홍 순배(신도), 김재현(신도), 홍선호(신도), 임태배(신도), 이상 근(신도), 김철수(신도), 김용화, 강은화, 신봉영, 안혜진, 최 귀희, 김정훈, 이상래(신도), 박애숙(신도), 천현중, 최준우 (신도), 박종호, 임정자(신도), 김덕문화(신도), 김정열(신 도), 김태진(신도), 임태순(신도), 박재두(신도), 최정열(신 도), 김경수(신도), 조현우(신도), 원여스님(법승사 주지), 이 옥례(신도), 한남숙(신도), 백순창(동문), 김민성(신도), 한동 기(신도), 안용기(신도), 권보명희, 이원우(신도), 이진열(신 도), 박정희(신도), 정영순(신도), 백승인(신도), 백승욱(신 도), 최기영(신도), 임태순(신도), 엄선용(신도), 김덕환(신 도), 김차영(신도), 임선우(신도), 채정석(신도), 양광석(신 도), 김장복(신도), 한은숙(신도), 조동현(신도), 최도만, 김 기운(신도), 우영하(신도), 나종원(신도), 익명 9명  
△425원원 김용순(신도)  
△42원원 손규현(동문), 이효숙(신도), 장승태(신도), 김덕애(신 도), 김정심형, 고양사불자회(신도), 현안스님(신도), 익명 3명  
△325원원 이경자(신도)  
△324원원 김병규(신도)  
△323원400원 임효강  
△32원원 신효중(동문), 김영수(동문), 채재희(동문), 최효순(신 도), 장기영(신도), 김영호(신도), 심건식(신도), 서근수(신 도), 최재원(동문), 이병호, 강덕인(신도), 한용길(신도), 김 영자(신도), 김관영(신도), 오영수(신도), 양규자(신도), 오세 현(신도), 박병순(신도), 오영수(신도), 신정아, 오보복(신 도), 박흥석(신도), 윤재철(신도), 조규설, 권경자(신도), 장 명열(스님), 송금선화, 정복순(신도), 김우현(신도), 정철원 (학부생), 이용욱(신도), 조태원(신도), 김우중, 성국사, 김주 현(신도), 문갑찬(신도), 김훈(신도), 윤수관(신도), 김동우 (신도), 김동현(신도), 이현주(신도), 강문성(신도), 양영욱 (신도), 문금순(신도), 김규자(신도), 김형중(신도), 이병구 (신도), 손현근(신도), 차정희(신도), 열광문(신도), 성원각성 (신도), 고상숙(신도), 유성문(신도), 소영희(신도), 이해경, 배원사, 조현자(신도), 열광문(신도), 소영희(신도), 이규순 (신도), 익명 5명

△22원원 이철은(동문), 문광수(동문), 허찬주(동문), 서일석(동 문), 최광우(동문), 해산사백암암, 이우직, 정영규(신도), 조 원경(신도), 고주희(동문), 구소선(신도), 안효수(신도), 전수 련(신도), 조정중, 유영은(신도), 최용국(신도), 이우형, 강경 자(신도), 이영관(신도), 임법성화(신도), 윤효일(신도), 이희 영(신도), 한준희(신도), 김준현(신도), 김규재(신도), 김경문 (신도), 장동섭(영양정보통신 대학원), 김태형(신도), 김진희 (신도), 김광희(신도), 김승숙(신도), 김성준(신도), 서현주 (신도), 이종원, 김경자(신도), 장명선(신도), 김용재(신도), 정정숙(신도), 조현희(신도), 조봉구(신도), 박승순(신도), 정 안스님, 오석희(신도), 윤성식(신도), 장우갑(신도), 이기봉 (신도), 남광리(신도), 서정열, 황정경(신도), 함영원(신 도), 김미소영(신도), 조도관음(신도), 최재일(신도), 김무성 (신도), 서영석(신도), 공태우(신도), 현경희(신도), 조병규, 송수혜(신도), 이세호(신도), 김희주(신도), 박동민(신도), 김 광진(신도), 김진영(신도), 박정갑(신도), 차병석(신도), 광범 사, 민태원(신도), 이종길(신도), 백승우(신도), 백대성(신 도), 이상문, 조성행덕(신도), 조은미(신도), 정희석(신도), 이정화, 김연순(신도), 익명 9명  
△21원원 김화용(동문), 조경문(동문), 김성진(동문), 박정열(동 문), 강경순(신도), 강용택(신도), 순형선(법승사 주지), 이 순자(신도), 박수현(신도), 유미경(신도), 박진순(신도), 임지 은(신도), 강지숙(동문), 문정순(신도), 박남희(신도), 안현희 (신도), 서영주(신도), 정동권(신도), 오금주(신도), 김은주 (신도), 오재영(신도), 박진선(스님), 창안사, 보덕현호, 박하 린(학부생), 이창희(신도), 광기식(신도), 지우경(신도), 김순 애(신도), 권인숙(신도), 오영근(신도), 박태운(신도), 갈매우 (신도), 허남찬(신도), 우유순(신도), 류환성(신도), 이호경 (신도), 박봉삼형(신도), 서광준(신도), 백종현(신도), 금옥희 (신도), 신정혜(신도), 안덕운(신도), 박태원(신도), 이문주 (신도), 허영숙(신도), 김경태(신도), 류왕선(신도), 류일선 (신도), 최병락(신도), 김태실(신도), 이준남(신도), 강은성 (신도), 오동택(신도), 안준순(신도), 라상원(신도), 조경삼 (신도), 도래지행(신도), 오지혜경(신도), 권민기(신도), 이창 준(신도), 이보덕화(신도), 송혜은(신도), 최재일(신도), 김기 만(신도), 백순애(신도), 김경삼(신도), 이상정(신도), 오성현 (신도), 유법일(신도), 신효경(신도), 최시원(신도), 용상현 (신도), 김상진(신도), 류상오(신도), 송영희(신도), 신상인 (신도), 신재철(신도), 김수민(스님), 송광자(신도), 이옥화 (신도), 소송영(신도), 심상호(신도), 고태현(신도), 김성필 (신도), 유현근(신도), 신승근(신도), 최대희(신도), 이순여 (신도), 오화영(신도), 오남진(신도), 조문식(신도), 송태숙 (신도), 김병국(신도), 고경희(신도), 유용인(신도), 강명숙 (신도), 조도연(신도), 강영자(신도), 윤기진(신도), 복기도 (신도), 손영석(신도), 안홍준(신도), 강구봉(신도), 노미주

(신도), 김영화(신도), 류종홍(신도), 김홍섭(신도), 손운현 (신도), 손용석(신도), 육경화(신도), 조철호(신도), 조병기 (신도), 박영원(신도), 박진명(신도), 장용(신도), 육수영(신 도), 육수호(신도), 우종희(신도), 이영주(신도), 황선영(신 도), 소재승(신도), 김운각(신도), 김은덕(신도), 김재덕(신 도), 황인돈(신도), 오명신(신도), 임찬우(신도), 박창식(신 도), 안효인(신도), 김용원(신도), 이갑분(신도), 원봉(신도), 조정희(신도), 박일순(신도), 최은미(신도), 정광준(신도), 김 집미, 이양순(신도), 법안스님(법승사 주지), 김부수, 조재자, 권민규(신도), 맹광일(신도), 오재분(신도), 조성자(신도), 김 장욱(신도), 박일순(신도), 정정순(신도), 이상태(신도), 허영 진(신도), 김순이(신도), 허재혁(신도), 김정은(신도), 이정순 (신도), 김진규, 김승규, 박정열(신도), 정정순(신도), 장정순 (신도), 이상순(신도), 강준익(신도), 민병은(신도), 김정환 (신도), 조광호, 이화경, 정현숙, 이병덕, 김진구, 최은정, 최 윤석, 김효승, 원기중(신도), 박광순(신도), 박은진(신도), 이경식(신도), 유재화, 박영애, 박수현(신도), 김삼승(신도), 고홍순(신도), 문영순(신도), 박성자(신도), 정경자(신도), 박 경희(신도), 박일순(신도), 임지석(신도), 전해능(신도), 구연 순(신도), 신용순(신도), 이효성(신도), 왕기봉(신도), 오성훈 (신도), 이종석(신도), 오영석(신도), 심종현(신도), 한대봉 (신도), 이상희(신도), 윤정환(신도), 임대호(신도), 김재준 (신도), 이병주(신도), 윤여성(신도), 윤석신(신도), 구자영 (신도), 이수정(신도), 윤여성(신도), 최경도(신도), 김진남 (신도), 상통화(신도), 추혜경(신도), 이미애(신도), 권봉진 (신도), 유인하(신도), 이숙이(신도), 이영관(신도), 박옥순 (신도), 백두암(신도), 권경식(신도), 신인철(신도), 김윤순 (신도), 김봉자(신도), 최무영(신도), 김미희(신도), 진강은 (신도), 최영모(신도), 권미진(신도), 이원세(신도), 김삼애 (신도), 임수원(신도), 임광일(신도), 박민술(신도), 정연옥 (신도), 서영일(신도), 김현숙(신도), 최홍순(신도), 이봉규 (신도), 서호경(신도), 남주선(신도), 박성기(신도), 남윤세 (신도), 김경수(신도), 박은경(신도), 조경희(신도), 전수호 (신도), 김현선(신도), 윤재모(신도), 신연주(신도), 김희경, 김미경, 김현분, 박숙순(신도), 정성도(신도), 김희옥(신도), 김광수(신도), 김순수(신도), 김용욱(신도), 신동혁(신도), 이 태규(신도), 강문모(신도), 홍용기(신도), 홍봉기(신도), 김건 배(신도), 이흥현(신도), 이광욱(신도), 남방현(신도), 김은숙 (신도), 최선희(신도), 이병구(신도), 박기수(신도), 오일영 (신도), 김중환(신도), 조병국(신도), 김광근(신도), 양주석 (신도), 이효실(신도), 나혜경(신도), 나유성(신도), 강성학, 권기연, 전준배, 강영철, 엄홍득(신도), 정삼수(신도), 황진 자, 김인사, 보각스님, 김수현, 양봉자(신도), 전진우(신도), 오세준(신도), 김일순(신도), 이효순(신도), 김미자(신도), 이 우선, 손일현(신도), 손영욱(신도), 최귀재(신도), 양정자, 홍

순규, 나명심(신도), 이순욱(신도), 익명 10명  
△52원원 김기주(신도), 김연이(신도), 황선복(신도), 김낙용, 박 인숙, 정준태, 정용욱(신도), 오경근(신도), 오형중(신도), 이 덕자(신도), 오윤호(신도), 임상숙(신도), 박순혜(신도), 함양 실(신도), 익명 2명  
△32원원 강진길, 김용만(신도), 익명  
△12원원 조재구(신도), 최남실

**장학기금**  
△22원원 생활협동조합  
△22원52원원 이수하이텍  
△22원402원원 에스원  
△42원원 정성도(동문), 김연희(불교대학원), 캡스  
△22원원 주대관문교기념회  
△22원502원원 전국경호정보학과 교수  
△22원22원원 경찰청정경과동창회(동문), 한신종합강강진단센터, 한국교통총합개발, 조은시스템  
△12원502원원 한국경호정보시스템  
△12원22원원 조현남(신도), 김영선(행정대학원), 박영복(동문), 전 신범(법시스템포럼, 김진규, 김도권, 김민경(행정대학원), 세 전섭우, 한성한교고시화원, 박영자  
△502원원 대영축량설계공사

**특목적기금**  
△22252원22원원 연구형성학부동문회  
△222원원 생활협동조합  
△12원482원원 조태태(동문)  
△12원원 김순경  
△22252원22원원 영원무역, 골드원코리아  
△222원22원원 참준  
△12원22원원 이철교(교직원), 자강산연, 정원철(학부생)  
△22252원22원원 스노이준에이  
△222원22원원 최상범(경제학과 교수), 변정영(컴퓨터학과 교수), 윤진호(회계학과 교수), 케이스  
△42252원22원원 태연이  
△422원22원원 김재문(법학과 교수)  
△222원22원원 최상영(회계학과 교수), 채대석(국제통상학과 교수), 박상진(생화학학과 교수), 김영재(경영학과 교수)  
△22252원22원원 배우석(교직원), 사회과학대학원졸업생  
△222원22원원 임배근(경제학과 교수), 정내원(영어영문학과 교수), 정광동(영어영문학과 교수), 장해룡(생물학과 교수), 한국교 육미디어, 김동원(경제학과 교수)  
△12252원22원원 이승남(교직원)

△12252원22원원 심규택(교직원), 김진철(교직원)  
△122원22원원 조태경(정보통계학과 교수), 김정진(한문학과 교수), 심규택(정보통계학과 교수), 백승석(중어중문학과 교수), 허 영도(국제통상학과 교수), 허상현(조경학과 교수), 강문호(국 사학과 교수), 배병국(교직원), 김철용(교직원), 에스엠, 송 민영(영문과 교수), 강범주(정보통신학과 교수)  
△1022원22원원 주부컴퓨터교육학자

**단위기금**  
△52원22원원 황남기(동문)  
△222원22원원 김용길(동문)

**동국사라저서금기금**  
△32471천500원원 윤정환(동문)  
△1421천원원 조경태(동문)  
△6227천원원 정필현(정경외과 교수)  
△621천190원원 안재봉(교직원)  
△4217천560원원 정성호(교직원)  
△4214천700원원 이경식(교직원)  
△4213천원원 김진환(교직원)  
△3216천320원원 황우열(교직원)  
△3216천260원원 정정훈(교직원)  
△3214천950원원 박근서(교직원)  
△3214천830원원 임배근(경제학과 교수)  
△3212천800원원 변민우(교직원)  
△221천980원원 김상애(교직원)  
△221130원원 박세훈(교직원)

**기금정수 ARS 안내**  
**7000-119**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02)7000-119로 하시면 됩니다)  
■ 금 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 (1일 중복되는 것은 1회만 인정)  
■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2260-3300, 2260-3791~5

# 동대문학상

## 시부문 장원수상작

### 갯벌에 핀 熱꽃

김 현 (문과대 문창2)

갯벌을 산책한다  
 노을빛 갯벌에 쉬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일몰이 물고 소는 바닷바람 속에  
 발걸음이 더 이상 발자국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어디까지 왔는지  
 금방 생각나지 않는다

젖어드는 숨을 쉬고 있는 갯벌 속에 노파가  
 붉은 고무다라이를 끌고 간다  
 고무다라이에는 아물지 못한 흉터가 기다랗게 철사로 기워져 있다  
 노파가 허리를 굽혀 갯벌에 두 손을 집어넣은 모양이  
 聖者가 기도하는 모습이다  
 갯벌에 검버섯처럼 핀 조개가 고무다라이에  
 늘어난다, 엉켜있는 낙지들이 흉터를 쓰다듬는다

일몰의 햇살이 갯벌에 밀물로 번져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파의 머리 뒤에 석양이 後光처럼 어린다  
 순간, 환해지는 노파의 몸  
 매일 일몰을 손목으로 받아내고 있는 노파의 굽은 등에 핀 熱꽃이  
 노을보다 진하게 타고 있다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노파의 굽은 등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본다, 점점  
 등이 간지러워진다  
 발걸음이 발자국을 만들기 시작한다

## 시부문 심사평

### 세계와 사람을 깊이있게 성찰하길

이번 응모작품들은 비교적 고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러는 아직도 낡은 말과 상투적인 생각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틀과 시적 묘사를 담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김현의 '갯벌에 핀 熱꽃'의 4편은 모두 작품이 무리 없이 읽히는 가운데 시상의 전개에 과탄이 별로 없었다. 특히 당선작으로 올린 '갯벌에 핀 熱꽃'은 작품 후반의 마무리가 돋보였다. 갯벌에서 만난 노파의 등 뒤에서 삶의 열꽃을 발견하는 일도 그렇고 덩달아 화자가 자신의 등에 열꽃이 필 일을 예상하는 암시도 좋아 보였다. 그리고 '발걸음이 발자국을 만든다'는 저 자신감을 얻는 일에 앞으로 그렇게 더욱 정진하기를 당부한다. 반면에 설현수의 작품들은 아직도 군데군데 객기들이 남아있어 아쉬웠다. 요즈음 문학계엔 일각에서 유행하는 '열기'와 '객기'는 얼마만한 차이일까를 한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널리 말하듯, 인문적인 상상력이 제 대접을 못 받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시가 세계와 사람의 삶을 깊이있게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한 외롭지만 빛나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번에 비록 선외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시를 쓰는 응모자 모두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홍신선 · 김영민

## 소설부문 심사평

### 허구는 서사적 논리에 기초해야

신현대(문창2)의 '단선작업'을 포함한 응모된 도합 여덟 편의 작품을 읽으면서 거듭거듭 인쇄심을 시험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짧은 문학도에게서 기대될만한 패기가 찬 문장이나 활달한 서사적 상상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선작업'은 그런대로 안정된 문장과 서사적 일관성을 보여주어서 반가웠지만 이 작품 역시 장원으로 뽑히는 주저되었다.

작중인물 '여자'의 서사적 역할이 갈수록 애매모호해지고 석연찮아지다가 종내는 오리무중으로 끝나 버리고 만 것은 이 소설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읽혀졌다.

서사를 경험의 논리에 어김없이 종속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다. 픽션의 본질은 오히려 다이나믹한 허구적 상상력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허구는 냉엄한 서사적 논리에 기초하는 허구이다.

만일 허구서사가 준엄한 논리를 획득하지 못할 때 독자의 열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작가적 야심을 가진 이라면 새삼 유념할 일이다.

한용환 · 장영우

## 제39회 동대문학상 입상작

### 시부

**장원** 갯벌에 핀 熱꽃 김 현 (문과대 문창2)  
**가작** 버스에서 설현수 (문과대 문창3)

### 소설부

**장원** 입상작 없음  
**가작** 단선작업 신현대 (문과대 문창2)

### 심사위원

**시부**  
 홍신선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김영민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 소설부

한용환 (사범대 국어교육과)  
 장영우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 수상소감

### “신기루 같은 문학에 다가선 느낌”

문학이란 말만 들으면 언제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골목골목, 수 없이 주저앉았던 그 누추한 틈새마다 문학이란 두 글자가 신기루 같은 희망으로 피어오르곤 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읽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신기루에 조금은 가까이 다가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지나가야 할 사막은 말기만 하고, 이제껏 사막의 초입에서 서성거리기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얼마나 더 가야 문학과 맨몸으로 마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쳐 쓰러질 때마다 세상과 맨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내 몸을



김 현 (문과대 문창2)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신기루를 진실된 희망으로, 문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겠다.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내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요일마다 하얀집 골방에서 찬 소주를 마시며 문학에 대해 이야기 했던 시분과 문우들, 언제나 힘이 되는 동국문학회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3년전 이맘때가 눈 앞을 스쳐지나간다. 그 때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 하얀 눈에 덮힌 산을 바라보며 했던 결심이 아직도 가슴 속을 뒹굴광 두드리고 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쓰겠다.

## 시부문 가작수상작

### 버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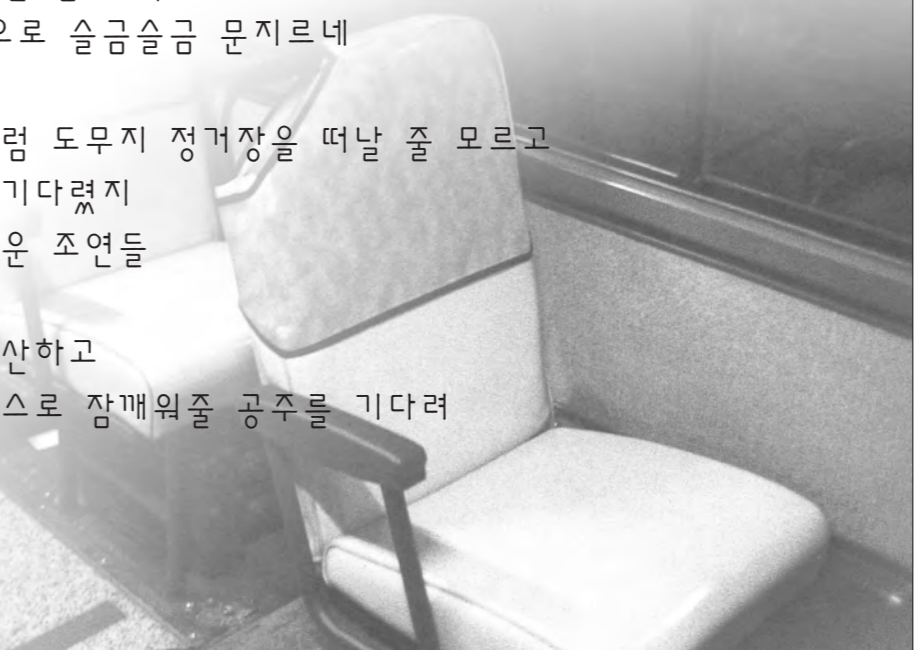
설 현 수 (문과대 문창3)

버스는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심야극장이다,  
 라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되뇌였지  
 술을 마셨고 시를 읽었지  
 사랑하는 여자는 내 옆에서 자기 애인 얘기를 하고  
 낯고 관습적인 문장들이 술잔 위로 걸터다녔네  
 천박한 음악이 우리들의 귓속에서 춤추었고  
 누런 담배연기는 술잔 위로 고이고  
 사랑하는 여자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견딜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

술집을 나와 길가에 터져 죽은 쥐를 그녀가 보라고 했네  
 몸보다 더 많이 피를 흘린 채 줄줄 자기 속을 다 보여주고  
 어둠과 함께 지워져가던  
 오, 아름다워라, 사랑스런 네 얼굴처럼, 네 빛나던 언어들처럼,  
 비틀비틀 걷는 어깨위로 손톱 만한 달이 박히고  
 술취한 자들 보도블록을 발바닥으로 슬금슬금 문지르네

버스는 버려진 먹다 남은 사탕처럼 도무지 정거장을 떠날 줄 모르고  
 등을 기대고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지  
 블랙톤 영상 위의 비교적 아름다운 조연들  
 조연들, 조연들  
 지루한 연기는 잠자는 관객을 생산하고  
 잠든 주인공은 발기를 꿈꾸며 키스로 잠깨워줄 공주를 기다려

무덤을 벌컥 열면  
 어둠, 지워지네



# 동대학술상

## 제16회 동대학술상 입상작

### 인문과학분야

**장원** 한국과 서양 사회 현대성의 초기적 형태 검토  
이승준 (문과대 철4)

**가작** Avalokites'vara의 권능 강화에 관하여  
안미라 (불교대 불교3)

### 사회과학분야

**장원**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아바타'  
황천덕·홍기영·문재섭 (정산대 정보관리3)

**가작** 푸코의 담론 및 권력 이론에서 주제와 저항의 문제  
김주환 (사과대 사회4)

### 심사위원

#### 인문과학분야

홍운기 (문과대 철학과)  
김호성 (불교대 인도철학과)

#### 사회과학분야

박순성 (사과대 복한학과)  
구승희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 수상소감

## 문제의식 철저히 할 기회로 삼아

지난 여름 방학부터 시작해  
근 5개월 동안, 부족한 능력으로  
힘겹게 산을 넘어오던 그 과정은  
나에게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그런 고생스러움은  
일종의 성취감으로, 다른 분들  
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의미  
있는 경험이기도 하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많이 부족하고,  
또 너무 난잡했던 논문에는  
많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함께  
'쓰쓰기'의 어려움을 이룬  
것이나'라고 절감했던 동학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논문을 쓰면서 강하게 떠올랐던,  
그리고 내 대학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가?'라는 의문은  
논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근거가  
되었다. 나에게 비추진 우리들의  
한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아직  
못다 이른 희망인 '현대적 삶의  
필요로움'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희망이  
낡은 난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각도의  
모색점을 찾고 있는, 조금은  
바쁜 어떤 형태였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넘어져야 할 '이중의 속제'로,  
'우리를 자신의 곤란함'으로  
여겨진다. 나는 그것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때들처럼  
보였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현대성의 초기적  
모습'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다.

'동대학술상'의 이 영광이,  
나의 문제의식을 더욱더  
철저히 밀고 나가, 그 끝에서  
더 큰 성과를 얻으라는 '기대'  
로 받아들이고, 이를 마음깊이  
새기고자 한다. 끝으로,  
'동대학술상'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내 부족한  
논문보다 더욱 완성도 있는  
논문들을 배출하는 장이  
되길 기원한다.



이승준 (문과대 철4)

적 삶의 필요로움'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희망이 낡은 난감한 문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각도의 모색점을 찾고 있는,  
조금은 바쁜 어떤 형태였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넘어져야 할 '이중의 속제'  
로, '우리를 자신의 곤란함'  
으로 여겨진다. 나는 그것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때들  
처럼 보였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현대성의 초기적  
모습'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다.

'동대학술상'의 이 영광이,  
나의 문제의식을 더욱더  
철저히 밀고 나가, 그 끝에서  
더 큰 성과를 얻으라는 '기대'  
로 받아들이고, 이를 마음깊이  
새기고자 한다. 끝으로,  
'동대학술상'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내 부족한  
논문보다 더욱 완성도 있는  
논문들을 배출하는 장이  
되길 기원한다.

### 인문과학부 심사평

## 인문학 위기 속 희망 안겨줘

'인문학의 위기'가 운운되는 현실임에도 근래 보  
기드물게 10편의 논문이 모였다. 질적으로도 심사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향상  
을 보여주었다.

이승준의 '한국과 서양 사회 현대성의 초기적 형  
태 검토'는 자생적 현대화가 차단당한 식민지 지식  
인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주제의  
독창성과 실용성, 우리의 문제를 서양(베이컨)의 사  
고와의 대비를 통해서 조망하고 있다는 회화적 방  
법론 등에 있어서 동국 인문학의 한 가능성을 감지  
케 하였다. 쉽게 장원작으로 의견일치를 본 까닭이  
다. 안미라의 'Avalokites'vara의 권능 강화에 관하여'  
와 강병우의 '자유이념의 현대적 기반'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는 주제의 대한 집중  
도가 탁월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초가 탄탄함을  
내보인 'Avalokites'vara의 권능 강화에 관하여'를 가  
작으로 선택하였다. 강병우 군 역시 자기견해를 보  
다 자신있게 내세우는 내일을 기대해본다.

홍운기·김호성

### 인문과학부 장원수상작

# 한국과 서양 사회 현대성의 초기적 형태 검토

## 물질·과학·지식에 대한 식민지 조선 지식인과 베이컨의 태도 비교를 중심으로

### 현대성 의식의 미고

#### 제1절.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태도의 공통성

##### 1. 물질적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열망의 확인 : 베이컨 학문의 실천적 의도와 개화기 조선 지식인의 과학관

베이컨의 저서 '학문의 진보' (The Advancement of Learning, 1603)와 '신기관'의 부제 '자연의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에 관한 잡언'은 그 제목에서부터 이미 베이컨의 학문적 의도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즉 베이컨의 학문적 의도는 단적으로 배움과 '학문'의 '진보'에 있으며, 이 때, '학문'과 '진보'(발견을 향한 변화)는 '자연의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 능력인 학문인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말한다. 심지어, 그는 '학문의 진보' 제2부에서 '한 정부의 모든 위대한 행위들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고 결실 있는 학문으로 세계를 광범위하게 중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적으면서 자신의 이러한 학문적 의도를 현실 정치에까지 넓혀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신기관' 1부의 단상 1~4를 통해, 그의 새로운 지식이 인간에게 있어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맨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손도 도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듯이, 지성도 도구가 있어야 무슨 일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도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촉진되거나 보호된다. ...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써만 복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자연물을 결합하거나 해체하는 것일 뿐, 그 나머지는 자연 그 내부에서 스스로 진행된다.'

이처럼 베이컨에게 있어 새로운 지식의 설정은, 그가 귀납적 사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본 인간 정신의 도구를 사용해서 지성을 촉진하거나 보호하는 데에 있다. 이 도구는 자연의 해석자, 그리고 자연의 활용자로서의 인간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 동시에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이러한 지식 체계를 산출하지 못했던 이전의 학문적 성과는 단지 '우연과 경험을 통한 발견과 이미 발견된 것을 정교하게 배열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베이컨에게 있어 학문함의 목적은, '인간의 지성 안에 세계의 모형을 세우는 것' 즉 '어렵진않한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것은 '세계를 주도면밀하게 해부하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철학적 공

상으로 날조해 놓은 어리석은 세계의 모습부터 철저히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학문함의 목적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와 효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성과의 측면에서도 진리를 보충'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베이컨에게 있어 새로운 지식은, 자연의 지배를 통해 인간의 세계를 적어도 이전보다는 물질적으로 중요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자연을 정교하게 배열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활용할 때, 훨씬 더 물질적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컨은 이렇게 확장된 물질적 가능성이 삶을 중요하게 하고, 확장된 삶의 중요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 아래에서나 우리 사회의 초기 현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20~30년대 당시 현대적 사고의 전형적 모습인 '물질적 진보에 대한 열망'은 어떠했을까? 그 시대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물질과 과학의 시대', '현대적 문명사회의 발아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물질과 과학 그리고 진보를 향한 폭발적인 열망을 보여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 과학, 진보'에 대한 열망은 왜 당시의 지식인들을 사로잡았으며, 또 그들에게 신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그러한 열망이 베이컨의 사고와 어떻게 다를까?

개항 이후, 서양물건들이 수입되면서 새로운 문물은 당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낯설지 않은 그 무엇이 되어갔다. 이렇게 서양의 물질들이 일상화되기 시작하자 그에 대한 수요가 차츰 증가하였다. 늘어나는 수요품이 공장에서 수공업으로 생산되면서 자본주의적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2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미 이러한 현대적 패러다임은, 적어도 도시화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뚜렷한 삶의 지표로 등장했다. 발전모델로서 서구적 소비유형, 자본의 원리로서 물질적 욕구의 지향을 반영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은 곧 현대적인 삶의 가치지향점이었으며, 이는 물질로 보장되는 행복과 이익을 향한 자본주의적 이상의 소조로운 출발을 예고한다. 그러나 새로운 문물과 문명에 대한 관심에 앞서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과학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다. 구한말 서양문물에 대한 관심은 서구의 발전된 문화가 물질을 중심으로 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더욱 높아졌다. 개화기의 '문명' 인식은 '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케 했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학문 즉 과학을 진흥시키는 것이 '식산흥업'(植産興業)의 지름길을 알게 했다. 문명을 곧 국운으로 인식했던 당시로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물질문명을 초조함으로 대할 정도였다. 다음의 글은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야! 기막힐 노릇이로다. 50년 전보다 변한 것이 무엇이요 진보한 것이 무엇이냐? 조선 사람은 문화발달의 능력이 넓다 못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넓다 못다 떨어졌느냐? 문명과 행복은 노력하는 자가 얻을 것이 분명하나 우리는 노력이 없고 항상 발전함이 없고 한갓 도원(桃源)의 꿈을 꾸고 천하태평을 구가한 까닭이다. 문명과 행복은 배우는 자가 얻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과학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좀 더 깊은 학문적인 관심으로 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을 일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과학은 근대의 선각자를 자처하는 지식인들에게는 가장 우월한 지식유형이었다. 왜냐하면 과학과 과학적 사고는 봉건적인 논리에 대항하는 가장 분명한 사고체계였으며 또한 과학적 방법이 계몽과 진보를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과학적 이해력을 바탕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지배하는 새로운 인간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 창조될 것이라고 믿었던 서구 계몽주의자들의 신념과 다르지 않았다. 즉 '새로운 지식'에 대한 1920~30년대 지식인의 태도가 '학문의 진보 => (자연 지배를 통한) 물질적 부의 증가 => 중요한 삶의 보장 => 인간의 행복과 민족의 달성'이라는 베이컨식 사고체계와 동일한 모습을 띠었다. 나는 이런 사고형태가 '물질적으로 발달한 사회'를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변화를 추동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대적 삶'의 초기적 모습으로 간주한다.

#### 2. 예전 지식에 대한 거부와 과학을 향한 지식 체계의 수립 : 베이컨의 새로운 지식과 식민지 지식인의 개화 또는 문명 개조 사상

베이컨이 제시하는 새로운 지식은 '귀납적 사유'를 통한 학문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귀납적 사유의 출발점은 인간의 정신활동이 감각활동에 뒤이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성립한다. 즉, 감각활동은 지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지식은 이 지각을 기본 자료로 설정하는 가운데 산출된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베이컨 이전의 사고,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식 사고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말 그대로 '새로운 지식' 체계를 구성한다. "지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는 어렵고 없다. 정신은 매일의 생활습관 때문에 그릇된 사실(邪說)에 오염되어 있으며, 심지어 허망한 '우상(偶像)'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과 구원은 정신의 작업 전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강조 필자)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지식이 어떻게 진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새로운 지식은 어떻게 확실하다고 보충할 수 있는가? 베이컨은 '신기관' 1부의 단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문에서 발견된 것들은 대체로 통속적인 개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심오한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사물로부터 개념과 공리를 끌어내야 한다.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감각과 개념에서 출발해 일반적인 명제에 도달한 다음, 그것을 '제1원리'로 혹은 진리로 삼아 중간 수준의 공리를 끌어내거나 발견하는 것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감각과 개념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상승한 다음, 궁극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제에까지 도달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적 방법'이다."

여기에서의 두 가지 방법은 연역적 사유와 귀납적 사유를 말한다. 베이컨에 따르면, 연역적 사유는 '처음부터 추상적이고 쓸모 없는 일반적 명제를 설정' 하지만, 귀납적 사유는 "자연에서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원칙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꾸준히 올라간다"고 말한다. 귀납적 사유는 자연에서부터 도출해서 점차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하여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미숙하고 경솔하게 '자연에 대한 해석'을 전제하는 연역적 사유와는 달리, 귀납적 사유는 감각을 통해 자연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학문의 진정한 증진은 이렇게 타당한 지식이 점차 양적, 질적으로 쌓이며 축적되는 과정이다.

베이컨은 자연을 직접 대해야 할 인간의 지성이 그것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그릇된 관념들의 방해로 받아 정신이 혼미하게 되면 새로운 지식을 향한 귀납적 사유가 전개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러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문을 혁신하려 해도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우상들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 종족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 발전하는 '종족의 우상', 개개인의 불합리한 기질로 인해 지성의 사용이 혼란과 착오에 빠지는 '몽골의 우상', 편견이 가득 찬 언어의 남용으로 인한 '시장의 우상',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학설에 기대거나 그릇된 논증 규칙을 맹신하는 '극정의 우상'을 지목한다. 당연히 이런 우상들은 서양에서 현대 이전의 봉건시대를 지배하던 카톨릭 신학이나 스콜라 철학을 비유한 것이다.

개화기와 식민지 시기 조선 지식인의 개화사상 또는 문명 개조 사상 역시 '과학적 지식과 합리적 사고'를 예전의 전통적 지식체계와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멀리서 그러나 전지구를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얼마 안되어, 그 소리는 마치 만호(滿潮) 때 물러오는 노도도 기터 무서운 그세로 물너오더니, 이편전점의 대표 소래로 중국의 만리장성을 부수고, 에도(江)의 흑선(黑船)으로 일본 사무라이의 칼을 부지고, 그 세력은 역시 조선의 강화도에서 와서 은은한 소리를 내기에 이 무순 소리이나 무니, 태서(泰西)제국의 봉건주의를 때려부순 자본주의 상업의 소래라 한다."

우리의 현대는 이처럼 낯설음과 두려움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현대의 빛은 밀려오는 제국주의의 칼끝과 그들의 뒤에서 자리잡은 그 어떤 힘으로 보였다. 때로 그 힘은 산업화를 선점한 자들의 경제력이었으며, 기계와 과학이라는 틀로 벗어난 군사력이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세련된 의식(衣食)이었던 것이다. 이런 모든 힘을 사람들은 '개화문명'이라고 불렀다. 당시 사람들(그리고 지식인들에게 개화의 목

적은 개명천지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곧 문명화였으며, 그것의 사상적 중심인 개조는 삶을 문명화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학과 과학적 사고는 새로운 지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현대 초에 물질 붓 밀려온 이러한 사고의 새로운 체계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열망으로 급속하게 낡은 사유체제를 대체해 나갔다. 봉건적인 지배질서를 합리적인 세계질서 속에 편입시키려는 욕망은 가장 먼저 이러한 서구의 보편적 지식과 합리적 이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서구 '문명'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지식체계는 '보편적 지식'으로서의 합리적인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질서'로서의 과학적 인식에 대한 관심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살펴 보았듯이, 우리 한국 사회 20~30년대 지식인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그에 대한 태도는 베이컨의 귀납적 사유, 과학적 지식체계, 인간 삶의 중요 보장과 그 내용과 의도, 지향점을 공유했다.

이처럼 이전과는 질적으로 새로운 지식체계의 추구가 20~30년대 지식인의 시대적 과제였다면, 그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한국 사회의 지배적 세계관은 봉건적 삶에 기반한 문화적 질서이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이미 낡고 오래된 '허만과 미망'의 삶의 방식에 불과했으며,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버려야만 하는 그 속에서 불과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지식인들과는 대립적 태도에서 그 효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봉건적 유교문화는,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문화적으로 새로운 문명적 감각인 패션의 유행, 여성의 단발(斷髮), 신식여성의 등장, 결혼 또는 연애관의 변화 등을 허용하지 않는 오래되고 보수적인 인습으로 간주되어졌다.

처음 유행은 일종의 문화적 특권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서구문화가 유행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한 초기에 서구의 문화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문화적 계급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표적으로 서구의 유행 혹은 외양적 현상이 유행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유행을 창출하는 계급이 주로 지식인이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의 단발이 세간의 관심과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신체발부 수지부'와 '남녀유별'의 관념이 합리주의적 정신에서 비롯된 권위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추종하는 태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봉건적 여성관에서의 해방이라는 복합적인 일련의 과정과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단발을 감행한 인텔리 여성 김활란은 '머음대로 머리를 잘라버리지 못하는 것은 재래의 인습의 결과'이며 머리를 자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권리를 위해서이며 이 '편리성'의 추구가야말로 기능을 추구하는 현대성의 큰 척도라고 주장한다. 단발을 관한 전반기에서 의견을 낸 한 여성의 말을 빌리면, '단발은 우선 머리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했거나 과거의 기준들을 깨고 새로운 가치관을 심자는 의도가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여성관은 '봉건적인 유교문화'를 극복하고 부정하는 데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현대화의 여정에서 여성의 변화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 제16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10면에서 계속

그것은 전근대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현대성의 성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와야 할 현대적 사유방식의 핵심이었다. 다음의 글은 당시 지식인 중 일부가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게 한다.

“인류세계를 통하여 ... 대주재가 창조 부여하신 평등의 권리와 동등한 자유, 다시 말해 우주의 자연적 대법칙에 위반하지 않고 항상 그 법칙에 순응하여 생활하는 인간은 원시시대로부터 여자가 남자에 복종하는 인조적 악습이 없음을 우리시대에 보는 비로라.”

이 역시 위의 '여성의 단발'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명관과는 대립되는 봉건적 여성관과 그것의 기반이 되는 '유교문화'는 인조적 악습으로서, 버려야 할 그 무엇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은 현대화의 여정에서 가장 분명한 도덕적 지침이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일상과 밀착되어 일상을 재조직할 수 있었던 구호들이었다. 남녀간의 애정문제와 결혼제도, 직업의 선택에서 여성의 역할은 재편되고 따라서 여성은 계몽과 반봉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수없이 이야기되었던 전형적인 유학생들의 연애관과 구식의 아내와 신여성을 접으로 둔 상황들을 낳았던 당시의 결혼관은 봉건적인 가치관과 양백히 결별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결합해야 하는 남성들의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새로운 지식과 그 사회적 결과들의 차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 1. 전통적 주체와의 갈등 : '흔들리는 주체'의 불안감

신문물의 패선,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의 등장, 자유연애의 동풍은 한편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상징적 행위, 가치관을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봉건적인 가치관과 충돌했을 뿐 아니라 사회자변에 잠재되었던 '흔들리는 주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신식'으로 대별되는 서구의 가치관이 전환의 속도와 힘입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빠르고 높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가치관의 전복은 오히려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체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소였으며, 특히 새로운 서구의 가치관 속에서 자유와 해방의 분명한 길을 발견한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 자유연애에 대한 동경은 그 자체로 사회적 정체성의 위기를 촉발시키는 분명한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지식으로 인한 일련의 결과를 나는 '전통적 주체와의 갈등', '맹목적 현대화 과정의 시작'으로 개념 정리해 보았다.

전통적 주체와의 갈등은 서양에서보다는 동양에서, 제국주의 국가보다는 식민지 한국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는 '물 질적이고, 문화적인 지식체계'를 가지고 사회를 계몽시키고자 했던 당시의 지식인들이 베이컨과 동일하게 지식의 목적, 의도, 비전을 함께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허무와 퇴영으로 빠져 들어갔는 지, 그리고 왜 우리 사회의 현대성의 시작을 식민지 현대성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당시 지식인들이 바라본 유교의 상은 단지 다르게만 생각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사고의 대상은 아니었다. 당시 유교 문화는 실질적으로 지식인들을 어느 정도 해택 받은 가정에서 자라나게 했던 자신들을 뒷받침하는 근간 사상이었으며, 지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교문화는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억압과 미움'을 양산하는 버려야 할 오래된 인습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사회적 조건들을 가능하게 한 무조건 버릴 수만은 없는 자신들의 기반이기도 했다. 자신을 구

성하고, 자신을 가능하게 했지만, 타파해야만 하는 정체성, 즉 '모순된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그들 내부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당시의 지식인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봉건적 삶과 현대화된 자신들 의식과의 괴리를 가장 먼저 체험했던 이들이었다. 그 모순이 가장 먼저 표출된 곳은 자신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인 집안, 그리고 더 나아가 매일 몸으로 부딪치는 아내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봉건을 상징하는 구식여성을 버리고 신식여성과 연애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환기 지식인의 갈등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외국으로 돌아다닐 때에 소위 신풍조에 따라 까닭 없이 구식여자가 싫었고 그래서 나의 일찍이 장가든 것을 매우 후회하였다."

즉, 그들의 현대화된 의식(연애결혼)은 맨 먼저 봉건적 상황(구식 아내)과 부딪혀 갈등을 일으켰다. 바로 봉건과 현대의 갈등은 지식인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집안에서부터 균열을 드러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회와의 균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2)유형은 전통적인 사회에 대해 이질적인 문화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따라서 조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탈적인 행동 양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었다. 그러한 이질적인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신지식인들이 인텔리였고, 이들은 차별적인 행동양식과 생활규준 그리고 외양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차별성을 드러내고 싶어했다. 이러한 유행의 현상은 맹목적이고 천박한 휩쓸림으로 비취졌고, 기존의 도덕적인 가치들을 혼란시킨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에 대한 비판은 혹독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머리모양의 유행에 따른 현상들에 관해서 그 어떤 유행보다 논란이 그치지 않았는데, 1920년대 유행하던 여자의 단발과 남자의 정발에 관한 시각은 비판을 넘어서 자포자기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보이기도 한다. "다 덮어치우고 그저 여성같은 인물이 되어라! 그래야 신진청년이다. 모던 보이가 된다! 여자가 머리 치장을 하니 남자도 머리를 기르자! 여자가 분을 바르니 남자도 분을 바르자! 여자가 색 머리머를 차니 남자도 색 머리머를

끼기로 하자!" 이처럼 '신문물을 받아들인' 그래서 적어도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게 보이는 새로운 유행은 지식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기존의 도덕적 가치관을 여지없이 흔든다는 점에서 외부에서의,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이 또한, 자신을 정체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한 단면이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연애화가 되라 한다. 연애 중에도 속연애(俗戀愛)이다. 이 속연애화 하려는 우리 사회의 상태는 참 가구(可懼)한 현상이다. ... 이 연애는 서양으로 부터 일본에 입수하였고 일본으로 부터 애도(我土)에 입하였다."



문명 혹은 진보의 패러다임이었던 서구화의 과정에서 '자유연애'로 시작된 성을 둘러싼 담론들은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선택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연애는 찬성하지만 속연애는 반대한다'는 말속에는 연애라는 '진보적인(서구화된)' 가치는 받아들여지지만 그로 인해 '혼란된'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의식이 잠재해 있다. 현대화에 대한 압박관념에 의해 서구적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서구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치관의 급격한 상실을 두려워하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 2. 맹목적 현대화 과정의 출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있어 현대의 초기적 형태는 당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빠르게 유포되어, 또는 비전으로 자리잡아 갔다. 그에 따라, 우리에게 현대는 출발점에서부터 새로운 빛을 내내어다가 아니라 타지에서 발견해야 했으며, 현대로의 발전은 타지에서 가져와야 할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초기에 가장 먼저 제기되었던 사회진화론이나 문명론 등의 '발전' 혹은 '진보'의 이데올로기들은 표면적으로는 다가를 현대를 향한 것이었다. 그런 이념 혹은 사상들은 '발전되지 못한' 아편의 상

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지만 다른 편에선 미몽과 아편 그 자체를 당연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른바 '모더니티의 유포'에 대해 사회적(혹은 계몽 지식인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저개발, 후진적 사회에서, '발전되지 못한 상태'를 전제해 진화 이데올로기는 식민화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식민지배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던 당시의 문화적 열등감은 바로 봉건적인 상황의 비참한 현실에 적용되었으며, 이는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진보된 문화에 대한 폭력적인 '문화적 이식'을 수용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식민지만 정의되었다.

현대를 향한 태도를 가장 먼저 결정지었던 상황은 개항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개화'라는 문화적 의미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였다. 개화는 곧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개항 이후 서양의 문명과 문물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힘의 근원을 '문명'에서 보았으며 문명이 곧 그들을 부강하게 한 것으로 인식했다. 개화의 목적이 분명해진 셈이다. 그런데 문명을 향해 문을 열자 상황은 너무나 급박해졌다. 개화로 인하여 받아들인 신세계의 모습은 폐쇄에 대한 공포를 더욱 부풀리게 했다. 그래서 봉건이라는 말은 개화의 반대편 쪽에 있는 낙후된 '현실'을 지칭하는 말로 등장하고, 갑작스럽게 이러한 봉건의 어둠에서 깨어나고 미몽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의식들은 뒤이어 개조, 혁신, 진보를 부르짖게 되었다. 그러나 문명에 대한 인식이 넓어질수록 압축에 대한 좌절과 열등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또한 현실세계의 이상향을 서구의 현대문명에서 발견한 이들은 동시대인으로서 조선과 서구와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적 현대문화가 그 경계 밖에서 끊임없는 패배와 열등감을 주어왔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또한 식민지배주의 태도는 조선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 현대화는 일상 속에서 견제와 억제의 상황 속에서만 가능했으므로 따라서 반발과 역동의 힘으로서의 현대화의 투쟁적 과정이 소멸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형태를 서서히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맞은 전시체제는 현대의 체험을 다시 한번 굴곡시키는데, 30년대 말부터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초기의 현대화를 향한 계몽주의적 태도마저 파소적 계몽주의로 전락되어버렸다. 이것은 저항의 여지나 자생적 발전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 뒤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적 현대화는 열등감과 좌절 속에서 달아야 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닌 맹목적인 형태로 고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3. 식민지 지식인의 딜레마 : 자기-허무와 퇴영적 자기 혐오

현대라 문을 열면서 지식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낡은 사상과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곳곳에 변화를 가져올 의식과 사상들을 풀어놓는 것이 새로운 지식인의 역할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배운 것을 조선을 향해 외치면서 이 땅의 선지자로 등장했다. 새로운 지식인들은 조선이 피폐한 문명과 낙후된 경제, 봉건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진보된 문명을 받아들이고 개조와 개혁을 통해 강건해지기를 갈망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토대로 삼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이 국가 정체성 소멸로 인해 현대를 향한 힘의 재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배자들이 식민중주국의 부르주아문화를 식민지배문화로 이식시키려는 과정에서 식민지 지식인들은 수많은 과정을 거리며 매몰되어갔다. 이로 인해, 식민지 지식인들의 현대적 자기 발전은 국제적 현실의 질서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적 투쟁의식과 함께 현실적 좌절감으로 인한 열등의식이 뒤섞여 나타나게 된다.

그런 지식인들을 바라본 입장 또한 그만큼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

었다. 현대로의 이행기 그리고 식민지 시기의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열등감은 점차 지식인을 자기 스스로의 개인적 좌절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지식인 자신의 목소리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 식민지 지식인의 좌절을 그린 채만식의 '헤더메이트 인생'은 지식인 계층을 이렇게 말한다.

"인테리.. 이모른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 장을 또는 조그만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헤더메이트 천어명씩 늘어가는 인테리.. 뿌르조자이의 모든 기원이 포화상태가 되어도 수요가 아니되니 그들은 결국 괴망을 바다 나무에 올라간다가 흔들리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 그 넘어지는 모다 무직 인테리요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업는 개들이다. 레디-메이트 인생이다."

지식인들은 이런 현실에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지만, 점차 식민지적 상황이 현실로 뒤바뀌자 그들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의 좌절은 허무와 퇴영적인 자기혐오로 드러난다. 테카당이 된 것이다. 식민지화한 현실에서 보통의 지식인은 식민지 관료가 되거나 학교 선생으로 남지 못하면 대개는 '고등실업자'가 돼버렸다. 1930년대가 되어 신식교육이 확산되면서 지식인의 수요는 훨씬 많아졌는데, 그만큼 고등실업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통큰'이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졌고 스스로를 통큰이라고 부르는 이도 늘었다 정도이다. 이들이 지닌 것은, 가난하지만 문은 일일 할 수 없다는 지조였지만 그들이 표현한 대로 '무도도식(無徒徒食), 무력(無氣力)' 속에서 타인에게 기생하려는 의존적인 경향성까지 보인다.

"이 룬관군(群)은 비록 천 밑에서 원고로 일하는 원고를 쓰고 있을 망정 불운한 정래에는 현실성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한 막연한 희망과 거기에 따르는 지조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배고픈 몸위와 체면을 간신히 설명해준다. 이들 룬관군을 그 눈치만에서 해방시켜주려는 공명심을 가진 기특한 부자가 여기저기서 용감히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지식인들은 그들 스스로 이렇게 된 까닭이 바로 '지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식이 곧 불안을 잉태하는 것이며 그것은 불안

에서 벗어나 일상을 영위하는 무리들과 그들을 확고하게 구분하는 기준이었다. 계몽주의적이며 지사적인 초기의 지식인들과 자유분방하고 퇴영적인 지식인들과의 거리는 모더니티가 진전되면 될수록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초기의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던 봉건과 개화의 갈등이 현실과 이상의 갈등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이율배반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일 뿐이다. 그것은 식민지시대 개인적 주체로서의 자아와 사회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지식인의 특징이 되었다.

### 4. 낡은 우상의 타파에 이은 새로운 우상의 숭배

내가 제시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축이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맹목적 현대화 과정의 출발'과 연속되는 문명의식이다. 베이컨은 새로운 지식으로서의 귀납과 사유의 전개가 인간의 정신을 총미하게 하는 우상과 그릇된 관념들을 통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우상'은 타파되어야 할 인간 지성의 '고질병'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베이컨에서 이어져온 과학적 사유를 그대로 자신의 '지식체계'와 '지향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구적 현대화라는 너무나 다른 결과인 '서구를 분할모델로 삼는 물질문명의 진보'라는 (독단과 권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에서) 또다른 우상을 세우고 있었다. 이는 서구라는 유포피아가 '공상의 열광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새롭게 자리잡은 변화를 저하시키고, 고정된 틀로 확립되며,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새로운 우상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내재적 발전을 철저히 차단당한 채, 맹목적으로 서구와 신문물을 이상향으로 설정한 가운데서 여지없이 드러난다. 이는 우리 사회 현대성의 초기적 면모를 살펴보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처음의 머리말로 돌아서서 몇 가지를 상기해보자.

나는 현대 사회의 특징적 면모를 "한 사회가 중단 없이 진보하며,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 관념, 시간과 역사의 힘 없는 전진운동"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현대성 관념에서 필수적인 것은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해체되고, 병형되며, 재형성된다는 믿음이며, 진정한 현대화는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베이컨이 제시한 그것의 초

기적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 현대성의 근원적인 면모는 '파악'과 '기술'의 발달이나 물질과 문명의 성장에 한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려는 역동적 관념"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모방하거나 답이라고 노력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베이컨의 학문적 의도는 '세계를 주도면밀하게 해부해서 어리석은 세계의 모습을 철저히 파괴'한 후 '인간의 지성 안에 세계의 모형'을 세우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세우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 학문함의 목적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와 효용이 일치하고, 성과의 측면에서도 진리의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기에 베이컨과 식민지 지식인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베이컨이 자연에 대해 관찰과 실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반적인 명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들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활용하고, 그러한 지배를 통해 인간의 세계를 적어도 이진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그의 학문적 목적을 설정한 반면, 당시의 지식인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서구의 지식체계를 답이아 할 그 무엇으로 상징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이 됐던 봉건 문화를 부정하는 데서 오는 내적 갈등과 식민지의 사회적, 정치적 통제 속에서 자신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의 좌절을 겪었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이는 베이컨에게는, 새로운 유포피아를 향한 강한 자신감으로, 식민지 지식인들에게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자기혐오의 양상으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다.

### 새로운 과제

나는 지금까지 '물질적이고, 문화적인 전환을 이끌고 있는 역동적 관념'을 현대성의 가장 본질적인 면모로 상징하고, 현대 사회의 가장 초기적 사유과정을 지니고 있었던 베이컨과 한국 사회의 1920-30년대 지식인의 물질, 과학, 지식에 대한 의도와 그것의 내용 및 비전을 살펴봄으로써, 이 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드러내 보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 한국 사회의 현대화는 그 초기적 형성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시작했으며, 그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병형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특징들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나에게 중요한 학

습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철학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 고유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나는 그 첫 작업으로 식민지라는 정치적, 사회적 억압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당시의 지식인들의 사유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내가 이 글을 씀에 있어, 대부분의 주장을 빌려왔던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의 저자 김진송씨는 "(당시의) 지식인은 테카당으로 말해지는 피폐와 퇴영 그 자체로 치열한 자아 의식을 보듬어가는 존재였다. 그것은 식민지 상황이라는 절대적 환경의 산물이기도 했지만 더불어 자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현대적 사고의 산물이기도 했다"라고 밝히면서 "가난한 통큰 지식인의 의식은 현대적 삶인 도시적 삶을 지향하지만 도시문명의 물질로부터 소외되기 마련이다. 소외에서 비롯된 정신적 내면화는 자의식을 복돋으며 그런 자이는 밀착되지 못하는 현실에 끊임없는 회의의 눈길을 보낸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독특한 결론이다. 나는 이 글 대부분에서 그의 생각을 인용 참고했지만, 그의 결론만큼은 동의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자기-허무와 퇴영적 자기 혐오가 한국 지식인 집단의 초기적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자의식을 복돋으며, 현실을 끊임없이 회'하게 한 원인이었다면, 내적 비판, 즉 자신과 자신을 삶의 지향에 대한 비판이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었어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의 '현대화'(혹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근대화') 과정은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른 논의를 풀어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현대화(또는 근대화) 과정 전체 속에서 역사와 문화, 정치, 이념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 글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내 글은 전혀 완성된 것이 아닌 연구과제를 새롭게 도출해내는 시작점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대적 면모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 한계를 살펴본 후, 미래의 계획을 설정하는 등의 기획들은 그것의 초기적 면모를 세세히 살펴볼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면, 내 글이 그러한 연구들 속에서 작은 성과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그리 과한 욕심은 아니라 생각한다.

# 동대학술상

## 사회과학부 심사평

### 논문구성과 논리전개가 평가의 관건

심사자들은 8편의 응모작 중에서 논문의 형식 충족성과 서술의 명료성을 기준으로 5편의 논문을 2차 심사대상으로 골랐으며, 논문 구성, 논리전개, 분석력 등을 기준으로 그 중에서 아래의 3편을 최종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상의 '아바타(Avatar)' - 그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중심으로 -  
- 황천덕·홍기영·문재섭(정보관리3)

일상생활에서 끌어온 참신한 주제를 경영학과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실용학문의 세계로까지 끌고 간 노력이 돋보였다.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잘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주제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 게다가 무난한 논문의 구성과 자연스러운 논리전개는 '장원당선작'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푸코의 담론 및 권력 이론에서 주체와 저항의 문제 - 김주환(사회4)  
필자는 학부 학생으로서는 드물게 무거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철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주제를 인용문에 의존하면서 차분하게 다루어 나가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 때문에 지나치게 기성세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과 주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논문을 구성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해, '가작'으로 선정하였다.

미국의 국가이익과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 정소영(정외3)

본 논문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간결하게 정리한 후, 자신의 주장을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은 분석을 치밀하게 추진하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학술논문보다는 보고서에 가깝다는 인상이 짙었다.

박순성·구승희

## 수상소감

### 힘든 과정 통해 얻은 소중한 추억

우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봐 주신 부모님께, 학업의 기초를 닦아 주신 정보관리학과 교수님들께, 계속 나태해지는 우리들을 자극해주신 백전현 선배님께, 푸념을 소주 한잔과 함께 들이준 주진오 학생회장에게, 그리고 귀찮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정보관리학과 학우들에게, 참사람 5기 친구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던 넉넉한 마음의 친구들에게 모두 감사 드린다.

2001년 히트상품에 아바타(Avatar)가 선정되었다. 현 상황에 뒤처지지 않은

주제를 선택한 것 같아 더욱 기쁘다. 사실 논문이라고 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작성하는데 노력하지 않은 않았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콘소리 쳐, 과 학술제를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너무나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많았다. 끊어질 듯, 멈출 듯 여기까지 이어왔다. 결과물은 솔직히 부끄럽고 자랑할 만하지 못하지만 그 과정만큼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같이 밤을 새워 가면서 마치 싸울 듯



홍기영·황천덕·문재섭 (정신대 정보관리3)

한 기세로 의견을 나누었던 그 쌀쌀한 밤에 나누어 먹었던 우동 한 그릇은 정말 잊을 수 없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몸쳐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려 한다. 힘내라고 해주시는 큰 격려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 대학생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학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정보관리학과! 정말 소중한 저희의 보금자리, 사랑합니다.

## 사회과학부 장원수상작

#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아바타(Avatar)'

- 그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중심으로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인터넷 기업의 거품론이 등장한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다. 지난 수년간 인터넷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수많은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지만,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인터넷 기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 기회를 경쟁자에게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를 지닌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도 쉽지 않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마진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터넷 기업을 현실에 안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인터넷 기업은 자신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러한 우위가 결국 시장 지배력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지 위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주의 기업이 다른 기업과는 다른 차별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의 해결방법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상의 아바타(Avatar)이다.

#### 2. 연구 목적

최근 일대일 마케팅(One-to-one marketing)이 마케팅 전략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아바타가 일대일 마케팅을 통한 고객 중심의 마케팅 기법에 응용될 수 있는 것을 비롯해 아바타를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밝히고자 했다.

### 제2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아바타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먼저 시도했다. 이미 분석된 사회·심리학적 분석자료를 통해 익명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면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바타 서비스를 중심으로 아바타 서비스를 분류,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아바타를 사용하고 개인 아바타를 가꾸고 꾸미는 데 관심이 많은 젊은층 위주의 1:1 면접을 통한 의견 교환을 중심으로 삼았다.

## 제2장 관련 연구

### 제1절 아바타에 관한 접근

#### 1. 아바타(Avatar)의 기원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Cyber', 'Space'의 결합어로서 가상공간이라는 뜻이다. CyberSpace를 다시 말하면 컴퓨터 사용자들이 인터넷이라는 매개를 이용해서 서로간의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CyberSpace는 DB로서의 속성, 매체(Media)로서의 속성, 그리고 의사소통으로서의 속성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의사소통의 속성이 요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속성이다. 의사소통으로서의 CyberSpace는 비동시성, 쌍방향성, 시공의 초월, 익명성, 다수 대 다수의 의사소통 기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익명성이 CyberSpace의 사용자를, 네티즌들을 매료시켰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변하고 있다. 바로 자신의 분신 아바타의 등장과 확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익명성은 완전한 비공개와 공개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었다.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의 표현이라는 이중성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아바타의 기원을 살펴보면, 아바타는 분신(分身)·化身(化身)을 뜻하는 말로 원래 내려오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Ava와 아래, 땅이란 뜻인 Ten의 합성어이다. 고대 인도에선 땅으로 내려온 신의 화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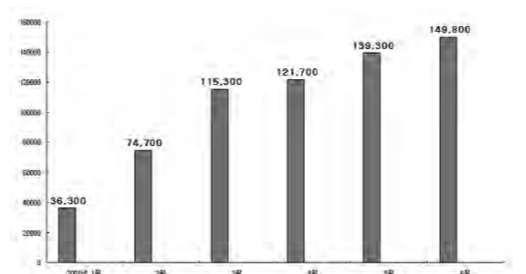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 속에 등장한 아바타란 말은 그 후 가상 커뮤니티 환경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로 해비타드, 월파월드 등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시대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3차원이나 가상현실게임 또는 웹에서의 채팅 등의 사이버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굳어졌다.

대부분의 게임이나 채팅서비스에는 주로 몇 가지의 캐릭터를 조합하거나 이미 완성된 아바타를 제공하지만 그래픽기술이 향상되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성품(Ready-made)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D처럼 사용자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아바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아바타도 등장하였다.

#### 2. 아바타 시장의 형성 및 규모

우리 나라에서 아바타 서비스를 처음 대중화시킨 곳은 네오위즈(대표 박진환, www.neowiz.com)의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www.sayclub.com)이다. 세이클럽이 2000년 11월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아바타가 서비스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이클럽이 아바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텍스트 위주의 채팅을 이용한 수익

모델에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수익 모델로의 전환에 의한 것이다. 세이클럽이 아바타를 이용한 채팅을 새로운 수익구조로 선택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해도 세이클럽의 아바타 전략에 대해서 다른 닷컴회사들의 반응은 '아바타가 과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현재 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아바타 측은 대략 1천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세이클럽만 하더라도 아바타를 이용한 순수익만 한 달에 19억 이상을 올리고 있으며, 네오위즈의 전체수익 중 세이클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39.5%에 이른다. 그리고 현재 세이클럽은 아바타 캐릭터 꾸미기로 133만 명의 지불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이클럽의 2001년 아바타 월별 매출은 그림1과 같고, 누적 매출은 지난 6월초 50억 원을 돌파한 바 있다. 네오위즈는 지난해까지 주 수익원이었던 웹툰(인터넷접속)의 매출 하락세를 세이클럽을 통해 만회하는 등 주력사업을 순조롭게 전환하고 있다.



[그림1] 세이클럽 디지털 아이템 월별 매출(단위:만원)

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챌(www.freechal.com)은 지난 6월 아바타 서비스를 유료화 했다. 프리챌의 경우 현재 230만 명의 회원들이 아바타를 만들었고, 그 중 70만 명이 돈을 내고 정기적으로 옷을 사 입고 있다.

아바타 산업이 콘텐츠 유료화의 모범생으로 각광받고 고성장세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규모도 빠르게 늘어 올해 2백억원을 넘어서고 내년엔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 3. 아바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그러면 이렇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아바타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자신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는 쉽게 이를 수 있는 소망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이루기 힘든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소원을 손쉽게 이를 수 있다면 어떨까? 아바타가 이 소망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 주고 있다.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쁘고 잘 생긴 외모를 가지고 공주나 왕자처럼 차려입어 보기도 하는 등 평소 자신이 소망하던 것들을 대리

적으로 경험해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한 대리만족이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아-이상과 대리만족에 관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리적 사회에서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성(gender)처럼 태어날 때부터 따라오는 육체적인 구속, 나이와 같은 시간적인 구속을 벗어날 수 없다. 가상 사회는 이러한 한계와 구속이 없으므로 물리적 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삶의 경험까지도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물리적 세계에서 인간은 육체라는 한 개의 물리적 자아를 가진다.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받는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를 바꿀 수 없고 더 늘릴 수도 없다. 또한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서 육체라는 물리적 자아가 가져오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싶은 꿈이 있더라도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의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또는 여러 가지 꿈들을 신체가 하나라는 이유로 모두 실현할 수 없기에 포기해야만 한다. 물리적 세계에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자아만을 가지며 복수의 자아를 가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경우로 취급당한다. 이와는 달리 가상 사회에서는 복수의 자아를 가질 수 있으며 복수의 자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아바타의 활성화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 심리학적 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나의 분신, 또 다른 나라는 절일 것이다. 네티즌들이 아바타를 또 다른 나로 인식하게 되는 근거는 동일시와 자기대상전이라는 이론이다. 동일시는 간단히 말해서 어떤 대상처럼 자신이 되기를 바라며 그 대상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대상전이라는 대상이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반영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더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채워질지 바라는 마음에 패션을 흉내내기도 하고 제스처를 따라하기도 한다. 마치 자신이 그 대상이 된 것인 양 행동해보는 것이다. 아바타에 이런 마음이 전이되어 자신의 아바타를 자신이 동경하는 스타일대로 꾸미기도 한다. 이렇게 꾸미던 아바타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바타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더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기자신인 아바타가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깊은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제2절 아바타의 한계

#### 1. 아바타의 분류

업체들이 제공하는 아바타는 기본적으로 아바타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단순 아바타 제공형, 기본 아바타 선택형, 기본 아바타 조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아바타의 표현 방식에 따라 2D와 3D 아바타로 분류가 가능하다.

(1) 단순 아바타 제공형  
단순 아바타 제공형이란 업체가 사용자에게 몇 가

지 정해진 아바타를 보여주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각 아바타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옷을 입혀 꾸민다거나 성형수술, 혹은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는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미리 입력되어 있는 옷은 모습이라든지, 화내는 모습, 당황한 모습, 좌절할 모습, 우는 모습 등의 형태로 각 해당 아이콘을 누르거나, 명령어를 입력하여 바꿀 수 있다. 보통 단순한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아바타일 경우 이런 형태가 많다.

I Love School(www.iloveschool.co.kr), 그리고 그림2와 같이 채팅 사이트인 러브헌트(www.lovehunt.co.kr)의 아바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림2] 러브헌트의 아바타 선택 화면

#### (2) 기본 아바타 제공형

기본 아바타 제공형이란 업체가 사용자에게 몇 가지 정해진 기본형태의 아바타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선택한 아바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꾸며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장 대중적인 예로 세이클럽(www.sayclub.com)의 아바타를 들 수 있다. 세이클럽의 경우 그림3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기본적인 아바타를 제공한다. 기본형태의 아바타를 꾸며 가는 방법에는 이목구비와 몸 색깔,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바꾸어 버리는 성형수술과 헤어스타일만 바꾸는 헤어샵 이용, 몇 가지 정해진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다니거나 그리고 수많은 옷들이나 액세서리를 자신의 아바타에 입히는 것들이 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그림4와 같이 자신의 아바타에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3] 세이클럽의 기본 아바타

#### (3) 기본 아바타 조합형

기본 아바타 조합형이란 업체가 사용자에게 기본 아바타를 조합해서 만들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때 사용자는 아바타의 얼굴형태, 이목구비의 조합, 몸통,

# 제16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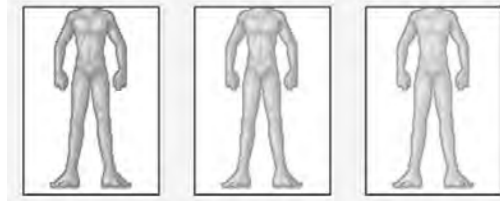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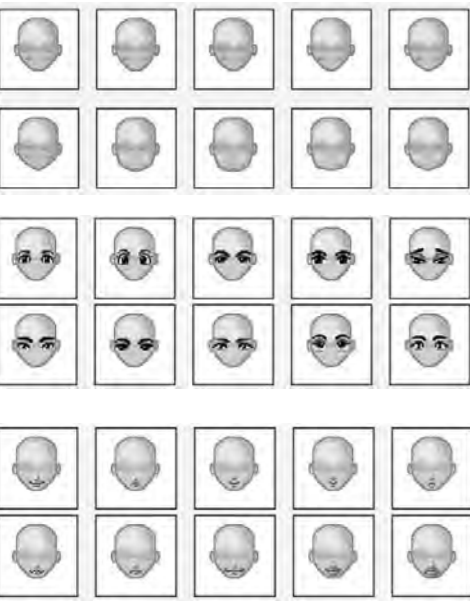
## 12면에서 계속

헤어스타일, 수염 등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게 된다. 대표적인 서비스 업체로는 프리퀄을 들 수 있다. 프리퀄의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아바타를 여러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만들게 된다. 그림5에서 보이는 것들 중에서 얼굴형을 우선 선택한 후, 눈 모양을 선택하고, 코와 입을 고른 후, 마지막으로 몸통을 선택함으로써



[그림4] 사용자에 의해 꾸며진 아바타

기본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낸 아바타에 수많은 옷이나 악세사리를 입혀서 더욱 더 강한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5] 프리퀄의 기본적인 아바타 구성요소



[그림6] 프리퀄의 여러 가지 아바타들

(4) 2D 아바타  
2D 아바타는 업체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아바타가 평면적인 것을 말한다. 위에서 열거한 한게임, 세이클럽, 프리퀄의 아바타들은 전부 2D 아바타이다. 아바타 등장 초기부터 사용된 방식으로 기술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고 시스템의 리소스를 적게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2D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자유자재로 아바타의 캐릭터를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3D 아바타가 주는 리얼리티 등은 2D 아바타의 단점이다.

(5) 3D 아바타  
3D 아바타는 업체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아바타가 3D 형태인 것을 말하며 머그 게임의 아바타 또는 아바타 채팅 등에 많이 쓰인다.



[그림7] 키포렌터테이먼트의 격투게임 제로의 한 장면

대표적인 3D 아바타로는 그림7과 같은 키포렌터테이먼트가 라이코스에서 제공중인 온라인 격투 게임 제로, 그림8에서의 울티마 온라인:오리진, 그리고 아바타 채팅을 제공하는 헬로팝(www.hellopop.co.kr)의 아바타를 들 수

있다. 3D 아바타는 제작비용이 높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며 고사양의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2D 아바타에 비해 사용자의 몰입도가 높고 리얼하여 사용자와 아바타간의 동일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8] 울티마 온라인의 한 장면

**2. 현재 아바타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 콘텐츠의 여러 부분으로 아바타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아바타의 최초 서비스 형태는 기본 서비스에 부가적으로 삽입되는 형태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채팅을 들 수 있다. 텍스트 위주로 서비스하던 채팅 분야에 자신을 대신하는 형태인 아바타를 도입함으로써 사용자의 호감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초반의 채팅 아바타는 단순한 형태로 몇 가지의 선택 안을 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기술의 발달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려하고 복잡한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3D 형태의 아바타가 가상의 맵 상에서 이동과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며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게임 장르에서도 아바타를 도입하였다. RPG 게임의 아바타들은 계속 발전을 거듭한 형태로 현재에도 제공되고 있다. 디아블로이나 울티마 온라인 등의 머그 게임의 경우 자신의 아바타에 특정한 갑옷이나 무기, 투구 등의 악세사리를 부착할 수 있다.

이상의 서비스 외에도 아바타를 메일을 이용하여 보내주는 아바타 메일, 메신저 프로그램에 아바타를 접속시킨 아바타 메신저 등의 서비스가 시작되곤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아바타를 주 컨셉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아바타는 기존의 서비스에 부가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는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이라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대중들은 가까운 시간 내에 아바타,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다. 아바타를 이용한 부가 가치 창출, 이 명제는 절대 소멸한 것이 아닌 것이다.

## 제3장 아바타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 방안

### 제1절 개인화 전략으로서의 아바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단순한 회원수 확보를 위한 마케팅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 이러한 마케팅에서 벗어난 고객의 충성도 확보가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공 열쇠라는 것이 정론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개인화 전략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아바타를 기업과 고객 사이의 1:1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CRM 관련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50%~60%의 고객들이 수익성이 없으며, 회사는 잠재 수익액의 20% 이하인 고객들에게 60%~80%의 지원 서비스 시간을 쓰고 있고, 신규 고객의 획득은 기존고객의 유지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또한 미국의 기업들은 매 5년마다 자사의 고객 중 절반을 잃는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객 충성도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온라인 소매를 전개하고 있는 Bain & Company와 Mairspring의 리서치에 의하면 고객 충성도는 온라인 비즈니스 수익성 확보에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Cyber Atlas가 전하고 있다. 리서치에 따르면 고객이 사이트에 자주 방문할수록 사이트에서의 소비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단순고객을 충성도가 높은 우수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분야별로 수집된 단순고객의 정보를 이용, 고객정보를 분석해 개인신상, 구매내역,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고, 파악된 고객을 위한 세분화된 마케팅/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해 우수 고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때 아바타가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아바타는 개인의 화신 본신이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듯 사용자들은 남들과는 철저히 다른 자신만의 모습을 나타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아바타의 특성을 고객 정보 획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아바타를 1:1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바타 매니아들은 그 사이트에 충실한 로열티가 높은 고객이 된다. 이런 로열티가 높은 방문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사이트의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것은 사이트 홍보와 광고 효과뿐만 아니라 접속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우수 고객을 창출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아바타를 이용한 웹사이트의 개인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웹사이트의 개인화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세분화되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왜 개인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웹사이트 개인화가 지니는 의

의와 웹사이트 개인화 유형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 1. 웹사이트 개인화의 의의

(1) 소속감과 애착  
개인화 된 서비스는 방문자가 웹사이트에서 무언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방문자의 관심사와 취향을 알아서 대응하게 되므로 보다 쉽게 방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때로는 방문자가 원하는 형태로 웹사이트 이용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방문자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웹사이트 사용이 가능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 소속감과 애착을 갖게 된다.

(2) 고객 로열티 향상  
웹사이트의 개인화에 따른 고객들의 관심과 애착은 고객 로열티 향상으로 연계된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네티당에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서 네티당의 이용 빈도를 높게 되는 것이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 로열티를 향상시키면 기업은 고객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고객과 보다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웹사이트는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를 더욱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3) 수익성 높은 고객에 집중  
웹사이트의 개인화는 사전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 된 서비스를 전개하다 보면 기업은 보다 많은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각 고객을 통한 수익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수익성이 높은 고객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4)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  
개인화를 통하여 고객과 다양한 측면에서 관계를 맺으면, 고객들의 요구나 취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제품의 개선에 적합한 피드백이 된다.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품과 서비스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2. 웹사이트 개인화의 유형

인터넷 비즈니스의 개인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웹사이트를 개인화하는 방식은 웹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웹사이트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는 무엇인지, 웹사이트의 내용이나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에 따라 웹사이트 개인화 방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재 웹사이트를 개인화 하는 방식들의 유형을 보면 개인 홈페이지 작성, 개체·화신 작성 지원, 개인화 된 웹사이트 경험 제공,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른 정보 제공, 개인화 된 공동체 형성, 소규모지원을 통한 개인화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웹사이트 개인화의 의의와 유형을 알아보았다. 개인화에 대한 필요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규모가 커질수록 확대된다. 기업은 거대해진 인터넷 시장에서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많은 경쟁사들 중 고객들이 자사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아무리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해도 진입 장벽이 없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화를 통한 타 사이트와의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면 경쟁사와는 다른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다. 개인화 된 서비스에 익숙해진 고객이 아바타를 꾸미는데 열성적이려면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다시 접속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고객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기존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아바타 서비스는 명쾌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창출을 위한 우수고객 확보를 위해 아바타가 활용될 때 아바타의 부가가치는 극대화될 것이다.

### 제2절 새로운 광고매체로서의 아바타

현재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는 약 2400만 명이다. 인터넷은 전 국민이 생활의 일부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을 광고매체로서 활용하는 인터넷 광고는 마케팅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림11] 세이클럽에서 영화 딜리야 놀자의 아바타 캐릭터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브랜드광고와 아바타의 접목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이클럽을 기준으로 한 아바타 아이템에 대한 지불고객이 133만 명이다. 이들이 구입하는 아이템에 브랜드광고를 삽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바타의 티셔츠에 나이키의 마크나 삼성의 로고를 넣는 것이다. 채팅과 동호회의 활성화로 인해서 기업들은 많은 수의 네티즌들에게 브랜드광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이클럽의 경우 가입자 수는 1,254만 명이고 동시접

속자가 15만 명 이상이다. 따라서 브랜드광고에 대한 양적인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인구의 대부분이 10대, 20대인 것을 생각하면 아바타를 이용한 브랜드광고는 잠재시장의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그 연령층에 대한 타겟광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9에서와 같이 아바타를 이용한 영화의 홍보도 가능하다. 영화의 개봉에 앞서 영화에 부합되는 아바타 아이템을 만들어 아바타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베스트 아바타로 선정된 이용자, 인기가 높은 아바타의 이용자에게 영화에 부합되는 아바타 아이템을 지급하여 영화를 홍보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였을 경우 해당 아바타 아이템의 판매도 증가한다.

### 제3절 아바타와 모바일(Mobile)의 접목

모바일(Mobile)이란 휴대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노트북PC 등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을 말한다.

국내 모바일 서비스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무선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0년 12월 말, 1501만1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같은 기간의 유선 인터넷 가입자 수가 1648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또한 유선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중 무선 인터넷 사용 경험 유무에 대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무선 인터넷 사용 경험이 전체의 55.8%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국내 모바일 시장의 수익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선인터넷에서 각광받았던 높은 수준의 아바타 서비스를 모바일과 연계시킨다면 모바일 서비스의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기서는 모바일과 아바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째, 각 모바일 업체들은 사용자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다양한 아바타를 개발하고 시작적으로도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아바타의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모바일로 제공되는 아바타의 경우 휴대폰과 전송방식의 발전과 함께 아바타의 수준도 높아져야 했으나, 이전의 콘텐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실정이다.



[그림10] 세이클럽 아바타와 현재 모바일로 제공중인 아바타의 비교

컬러폰의 출시로 각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높은 퀄리티의 아바타 제공이 가능해졌다. 휴대폰 사용자들의 취향과 심리를 반영하여 기존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아바타 서비스 이상의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모바일 업체들은 분명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바타 아이템을 유료로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아이템으로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며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고 싶어한다. 남들의 아바타보다 특색 있게 꾸미고 은연중에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바타 매니아들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이다. 또한 아이템들의 꾸준한 업데이트와 독특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다. 다시 말해 돈을 지불하고도 꾸미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셋째, 모바일 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들의 아바타를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운로드 받은 아바타를 이용해 휴대폰 사용에 대한 도우미로 이용을 할 수 있거나 magic 등 모바일 서비스의 메뉴나 기능에 대한 설명도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제공한다면 사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휴대폰 배경화면에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는 방법은 몇몇 단말기 경우 자체적으로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 또한 SMS전송이나 통화 발신 시 자신의 아바타를 타인에게 보여 줄 수 있게 하고 아이템 상품권이나 자신이 고른 아이템을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수익구조라 할 수 있다.

### 제4절 아바타 관련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아바타 관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바타 서비스 제공 업체가 아바타 이외의 주 콘텐츠가 있어야 하며 그 콘텐츠와 아바타 서비스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주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수익 감소로 쇠퇴해가던 닷컴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아바타를 선택하여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이러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아바타 서비스와 자기 기업의 주 콘텐츠간의 상관관계를 등한시하고 아바타 서비스의 가짜다 줄 새로운 수익만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바타 서비스는 닷컴 기업의 주 콘텐츠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큰 명제는 주 콘텐츠와 아바타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성공적인 아바타 서비스 제공 사이트로 평가 받는 세이클럽과 프리퀄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세이클럽은 채팅을, 프리퀄은 커뮤니티 제공을 주 콘텐츠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채팅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과 대화, 게시물, 메신저, 게임 등을 통해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채팅과 커뮤니티는 이용자간에 서로를 상대방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익명의 바다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었고, 그러한 욕구를 아바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철저하게 감추길 원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자신을 표현하길 원한다는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이 점을 깨들은 아바타 서비스가 세이클럽과 프리퀄에서 성공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은 이유이다.

아바타 관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기존에 제공되던 주 콘텐츠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개발이다. 아바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아무리 폭발적이라 해도 주 콘텐츠가 부실하다면 결국은 한 명, 두 명씩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사용자는 아바타를 자신의 뜻대로 꾸며서 자기만족을 얻지만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만족감을 얻길 원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아바타를 볼 다른 사용자들이 없다면 사용자들은 돈을 들여 아바타를 꾸미지 않을 것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인터넷상에서 가지는 관계에서 아바타를 활용하고 싶어한다.

세이클럽과 프리퀄, 두 기업에서 빠른 속도로 아바타 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미 많은 가입자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기본적인 회원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바타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면 사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다른 사람들에 보이고 싶어하는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자신이 아바타를 꾸미고 보여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정착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아바타 서비스가 아닌 주 콘텐츠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개발로 회원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4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논문에서는 아바타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아바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바타의 기원, 아바타 시장의 형성과 규모를 살펴보고 아바타를 꾸미는 아바타 매니아들에 대해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해 이해를 도왔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아바타 서비스에 대한 분류와 아바타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바타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 방안으로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화 전략이 있다. 닷컴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찾는 고객들이다. 그 중에서도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런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통해 기업은 장래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닷컴기업은 보다 많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고객 한명 한명에게 각각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이트에 대한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 한 방법으로는 아바타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바타를 꾸미는 데 열중한 아바타 매니아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에게 있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아바타를 새로운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아바타 서비스를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더욱 증가해 많은 네티즌들이 아바타를 더욱 쉽게 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바타 아이템에 로고를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 아이템의 구매자와 그 구매자의 아바타를 대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다. 브랜드 광고와 영화의 홍보에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바타를 모바일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공간적 제약이 없어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음성 또는 통화상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그 특징을 아바타와 응용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큰 모바일 시장의 확대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아바타 서비스 자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아바타 서비스의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아바타 서비스 자체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함께 기존의 제공하던 주 콘텐츠에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하여 아바타 서비스의 제공이 기업의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아바타 서비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빠른 기간에 이미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였고, 아바타 서비스 제공 기업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아바타 서비스 그 자체만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 고속의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아바타 서비스 자체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현재의 아바타 서비스 제공 방식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진정한 아바타 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시장의 확대를 통해 부가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아바타 서비스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 서비스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주력 수익 창출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아바타를 받아들여야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 떨꺼둥이, 시민과 손잡고 세상 담 넘기

## 사회냉대 속 무시된 노숙인 인권 ... 편견 버리고 자활 도와야

신문지 한 장의 용도는 다양하다. 기사를 읽을 수도 있고 반쯤 접어 바닥에 깔고 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신문 한 장은 따뜻한 숨이불이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호막이다. 바로 거리에서 힘겹게 생을 이어가는 '노숙인'들이다.

지난달 14일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대표=문현준, 이하 노실)'은 종로 밀레니엄 플라자에서 '떨꺼둥이와 함께 하는 세상만들기'라는 주제로 '노숙인 인권 문화제'를 개최했다.

'떨꺼둥이'란 의지하고 지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을 뜻하는 말로 노숙인보다 정확한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냉대를 안고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민간의 지원 등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IMF 때와 그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범죄인 취급을 당해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고, 설령 얻는다 해도 노숙인임이 발각되면 임금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이들에게는 실정법 개정이나 정부차원의 지원보다 사회

에서 자신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것이 더 큰 바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행사는 노숙인들이 문화행사의 주체가 되고 그들의 인권문제를 문화제 형식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새롭다.

한을 품고 정처없이 떠도는 낮의 아우성과 희망을 표현한 마임예술가 조성진씨의 무언극 '배회하는 낮, 떠도는 너'는 곳과 사물놀이, 마임까지 다양한 문화장르를 통해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노숙인이 직접 쓴 '집사의 기도'라는 시에 곡을 붙인 공연예술가 '정말로'의 재즈공연과 청소년 댄스그룹 '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또한 봉어빵 장사로 자립사업을 시작한 노숙인이 직접 만든 봉어빵을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노실 '떨꺼둥이' 편집집장 이원기 씨는 "내년부터 '떨꺼둥이'라는 주간지를 만들어 노숙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노숙인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노숙인들이 사회의 냉대를 겪으며 시민들과 마주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신들을 위한 행사라는 인식 역시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불결하고 태만하다는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노숙인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전체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야프간 주민들의 인권문제나 기아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하루에 수십명씩 죽어가는 주위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안 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책정된 수역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지만 민간차원의 자활운동이 활발하고, 프랑스는 노숙인들이 만들어 파는 '홀리스 신문'을 시민들이 적극 구매해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도 더 많은 쉼터를 지어주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연계 하는 등 노숙인들의 구체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는 인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 달하나 천강에

### 삶을 쫓는 사람



장 시 기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무슨 이유 때문인가  
삶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무엇 삶을 잘 양육하는 사람은  
(중략)  
무슨 이유 때문인가  
죽음의 땅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  
이다  
-도덕경 50장-

우리의 삶과 그 삶에 대하여 사유하는 방식이 '문화'이다. 그런데 오늘날, 근대화 내지는 서구화되면서 문화는 크게 변화했다. 그 변화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삶과 죽음에 대하여 사유하는 방식의 변화인 듯 하다. 한 마디로 탄생기념일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념일은 그가 죽은 날이다. 서양에서 보통 사람들은 수많은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슬슬히 혼자 버려진다.

이와 반대로 태어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죽음의 순간을 경축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다. 어느 집의 장례식이든 약자지킬 하거나 시골벽적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굉장하 불행했는 것이라 예측한다.

삶에서 나와 죽음으로 들어간다  
삶을 쫓는 사람은 열 중의 셋밖에 없다  
죽음을 쫓는 사람이 열 중의 셋이고  
삶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한 열 중의 셋이다

'삶에서 나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삶을 쫓는 사람은 열 중에 셋 밖에 없다' 정말 서글픈 말이다. 그 나머지는 '죽음을 쫓거나 스스로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삶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삶의 구성요소들인 취직, 결혼, 출세, 돈, 명예 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우리가 비록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만든다. 그러나 '삶을 잘 양육하는 사람'은 '죽음의 땅에 대한 의식이 없다. 죽음의 땅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 신비하게도 다양한 삶의 구성요소들, 즉 사람들이 말하는 돈, 명예 등이 스스로 그를 따라다닌다. 이 해례에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는 말을 되새김질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삶과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삶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 될 때, 수많은 삶의 요소들은 하나 둘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 옛 음식책이 있는 풍경전

## 오감이 즐거운 맛있는 전시회

'영월행 일기'란 이강백의 희곡작품으로, 청령포로 유배를 보낸 단종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 세조가 파견한 한 노비의 일기이다. 물론 영월행 일기라는 이 고서적은 순전히 작가가 꾸며낸 가상의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영월로의 가승여행을 통해 관객과 독자들로 하여금 옛 선인들의 생활을 엿보고 현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흔히 고서적이라고 하면 문학이나 정치, 의학, 역사 등과 같이 당시 남성들이 관여하던 분야의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부녀자들의 몫이었던 요리에 관한 옛 책은 어떨까. 과연 전해져 내려오는 책이 있을까.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우

리의 전통음식을 소개하고 있을까. 궁중음식연구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은 오는 7일까지 우리 음식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옛 음식책이 있는 풍경전'을 마련한다. 현재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는 1400년대부터 1800년대의 옛 음식책을 비롯해 1900년대 이후 근·현대의 음식책 300여권이 연대별,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다.

특히 전시된 책들 가운데 이번엔 처음 공개된 '산가요록'이 주목을 끈다. 1400년대 조선초기 의관을 지낸 전순의가 지은 이 책은 다른 옛 책들과는 달리 지은이의 이름이 밝혀져 있고 저작연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음식문화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는 평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음식책인 '음식디미방'을 쓴 안동 장씨부인의 안방과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상차림이 그대로 재현되는 등 보다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을 직접 보고 맛볼 수 있는 '전통 떡·과자 만들기 체험'을 기획해 눈으로 보는 전시회에서 탐미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이와 관련해 궁중음식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전통음식은 어머니의 손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헌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음식문화의 근거를 찾는 일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과 같다"고 강조했다.

'옛 음식책이 있는 풍경전'은 단순히 음식만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아니다. 인문체로 작성해 필사본으로만 남겨진 책들을 보면서 과거 아녀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고, '개장국 느낌이' '석류탕' 등의 음식에 쓰인 재료로 생활양식을, 더 나아가 그 당시 시대상황까지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옛 음식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옛 책이 있는 풍경전'이 정말 맛있는 전시회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대중음악 바로보기 특강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와 대중음악개혁을 위한 연대모임은 '우리시대 대중음악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오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오후 7시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제2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우리시대의 대중음악이 갖고 있는 한계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 가 될 것이다.

### 남산 봄 나들이

국립극장이 서울 중구청과 공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남산 봄 나들이' 행사를 국립극장 곳곳에서 연다.

국립국악관현악단·국립창극단의 공연, 남궁호의 마임 '결혼식' 등 공연과 한국꽃문화진흥협회의 '봄의 실내악', 고려타종이협회의 '추억의 풍경' 등 전시가 펼쳐진다.

이 행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 '붉은 사막 사하라' 전시회

유목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붉은 사막 사하라'전이 (주)다솔 스페이스의 주최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63빌딩 특별 전시관에서 열리며 사하라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그곳의 원시문명과 동식물 등을 통해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하라 지역 전통춤인 '케르바 댄스'와 전통음식인 '쿠스쿠스'를 시식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된다.

### 신문만화 100년전

'한국신문만화의 역사'와 '신문만화로 보는 현대사'를 주제로 한 '신문만화 100년전'이 개최된다.

오는 27일까지 동아일보 사옥 4층 박물관 기획전시관에서 열리며 최초의 신문만화부터 50년대 경향신문에 실린 '두꺼비' '고바우 영감', 한겨레신문에 실린 박재동의 '한겨레 그림판' 등 신문만화 250컷과 유물 80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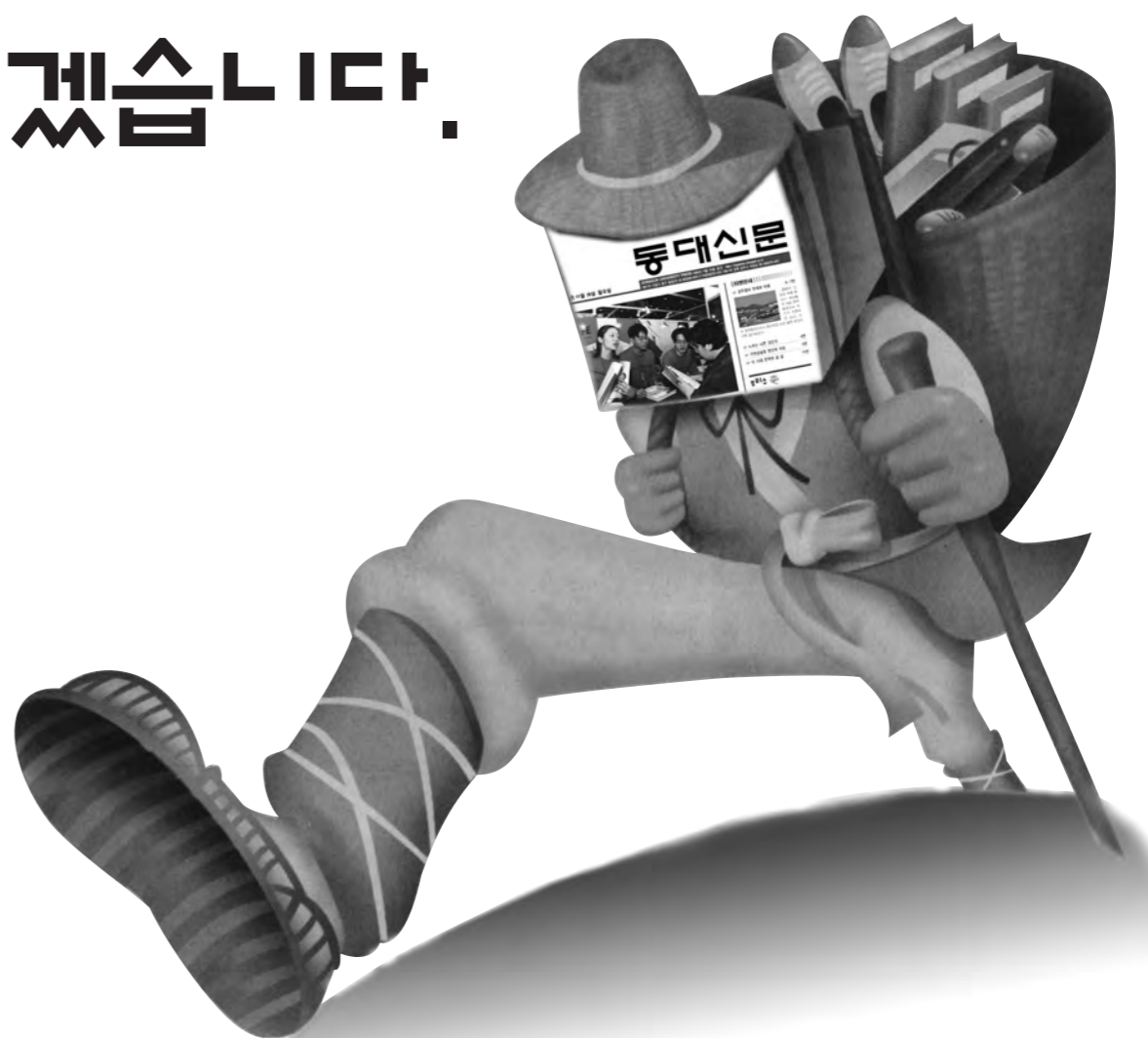
동대신문 기획광고

# 항상 발로 뛰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50년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새롭고 알찬 동대신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대신문은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동문, 전국의 고교교사, 사찰 및 언론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료는 동대신문 발전에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료는 동대신문사(조흥은행 371-01-065384)로 보내주시시오.  
■구독료 : 20,000원(1년치분)



동대신문사

# 우리랑 놀 사람 여기 모여라!

B.C 8세기부터 B.C 3세기에 이르는 고대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리는, 들끓는 개혁의 시대였다. 이 시대는 잦은 정치·사회적 변동으로 나라 안이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반면 누구나 자유롭게 질서회복방안을 논할 수 있는 활발한 사상 활동의 시대이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서 공자·맹자·순자 등의 사상가들이 각자의 사상을 소리높여 주장했으며 '제자백가'란 이 때의 다양한 사상 활동을 가리켜 생겨난 말이다.

## 모임 춘추전국시대

지금 우리 곁에도 또 하나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바로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의 주체가 되어 즐길 수 있는 '모임'의 춘추전국시대이다.

주변에서 여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새로운 종류의 모임과 동호회 속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함께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임의 종류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해외유학과 등이 주축이 된 사교 모임 '클럽프렌즈' 4륜구동 자동차동호회 '에니웨이 4x4', '하이텔PDA 사용자모임' 등 친목, 사교 등 관계지향적인 것에서부터 영화, 자동차 등 취미지향적인 것, 소프트웨어, PDA 등 정보화 추세에 편승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세분화 되어가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문화 향유 자세를 탈피하고 문화의 주인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문화행위과정에서 생성된 문화를 모임문화라고 부른다.

이들은 혈연·지연·학연으로 얽매인 만남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호나 문화라는 코드 아래 모여 모임을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그 안에서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문화를 향유한다. 이런 모임의 활성화에는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와 (주)프리텔의 '커뮤니티' 등은

인터넷동호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며 많은 네티즌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활동을 연계하기도 했다.

## 모임문화의 장단점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사회 전반에

퍼져 뚜렷한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가 생성되면서 문화의 영역이 확장되고,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모임문화는 문화 전반에 창조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이야기만 할 수 있는 모임문화의 특성상 모임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을 소외시키거나, 문화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회원들의 잇단 자살로 물의를 빚었던 자살동호회 등 부정적인 목적 아래 만난 경우도 문제가 된다.

## 문화발전의 발판으로

춘추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문화적 창조력이 충만한 시기 중 하나였으며, 제자백가는 그 다양성과 발전적 성향으로 중국 학문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모임문화 역시 모임민의 세계에 빠져 편협해지는 것을 지양하고,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개방성과 질적 향상으로 문화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른 분야와 연계하고 서로에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을 도모해 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주제적으로 함유하는 발판이 될 때 진정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매체비평

### 방송 편 - !느낌표

“공익성과 재미,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라”



교양연예프로그램을 표방하는 MBC '느낌표'.

각 방송사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인기있는 코너들을 보면 개그맨을 옆에 얹어놓고 밑에서 당기기, 빠른 말의 속도면, 여자남자 등 웃기기 위한 과장된 행동이나 표현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 우습다기보다 제대로 웃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오락프로그램은 기획력 부족을 스타들의 입담이나 자극적인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전정적이다' '폭력적이다' 심지어는 '저질이다'라는 혹평을 듣는다.

그런데 MBC 방송국에서 가을 개편 때 첫 방송된 '느낌표'가 교육과 재미를 함께 전한다는 형태로 주목을 끌고 있다. 간단 명료한 한글 제목부터 바담직한 '느낌표'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45분에 다섯 개의 꼭지를 통해 독서, 교통, 환경 등 사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책!책!책을 읽읍시다'는 좋은 책을 많이 읽자는 캠페인이다. '책읽는 사회'를 위한 '운동본부'에서 선정한 책을 홍보한 후 한 달 동안 거리 인터뷰를 통해 얼마만큼 읽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감초처럼 등장하는 독서 선생님들의 교훈은 평범하지만 진솔해서 독서 의무를 높여준다. 또한 '다큐멘터리 이경규보고서'는 도심 속에서 발견한 너구리를 보살피기 자연으로 돌려보내 야생동물에 대한 사랑의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끌고있는 '신동엽의 하자하자'는 아침밥을 굶는 학생들에게 담임선생님이나 어머니가 화려한 아침상을 차려주는 코너로 일시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해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거리를 좁혀준다. 그밖에 '경림이의 길거리특강' '신교통행명 캠페인'까지 각 코너마다 사회 문제를 오락이라는 필터로 가볍게 걸러 주제를 제대로 전달해 주고 있다.

아쉬운 점은 진행자들이 방송3사를 넘나들며 겹치기 출연하는 인기 개그맨들로 구성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던 말장난이나 과장된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그맨이 출연자를 편안하게 해 자연스러움을 이끌어 내고,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접근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장난스러움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역효과를 끼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공성을 앞세운 프로이니 만큼 과장된 표현도 적절한 선에서 절제하는 노련미와 프로에 맞는 전문성으로 차별화 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MBC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느낌표'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역시스러운 상황과 기획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 올라와 있고, 잘 되길 바라는 후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볼 때 그동안 시청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어떤 영화가 흥행을 하면 그 덕을 보려는 아류작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곤 한다.

이제 시작이지만 자리를 잘 잡아서 공익성을 표방한 오락프로인 '느낌표'가 흥행의 원류작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밝아지지 않을까.

이은규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 캠퍼스 문화천국이 열린다

이색동아리, 대학문화 다양화에 이바지 할 것

최근 동양 곳곳에 특색있는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문화향유 태도를 반영한 것이며,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서울캠 'SSID'(Salsa and Swing In Dongguk)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라틴댄스를 함께 배우고 즐기기를 위한 라틴댄스 동아리이다. 초기회원 4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는 회원들만 30명이 넘는 SSID는 커뮤니티 회원수도 무려 1백명에 달한다. 이는 라틴댄스에 대한 본교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내공연뿐만 아니라 타학교와 꾸준한 연계활동으로 실력을 쌓고 있는 SSID는 주말이면 라틴댄스 전용 바를 찾아 연습하는 등 라틴댄스를 제대로 알리고 많은 학생들과 함께 즐기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SSID는 그동안 높은 교습비와 사교댄스에 대한 선입견때문에 낯선 문화로 여겨졌던 라틴댄스를 학생들 품으로 한 발짝 다가가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당구 동아리 '스리쿠션' 역시 학내 이색 동아리로 꼽을 수 있다. 스리쿠션은 당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학내 또 하나의 레포츠 동아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일정을 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실력치를 즐기고 좀 더

효과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스리쿠션 회장 조상훈(경영1) 군은 "점차 개인화 되는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 학내에도 다양한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캠 중국산업경제연구소 산하동아리 '강호유람'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드러내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중국을 여행하며 넓은 시각을 갖고자 만들어진 강호유람은 중국어는 물론 중국의 지형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해 그것을 바탕으로 발표회를 갖기도 한다.

올해로 창단 3년을 맞은 강호유람은 또한, 지난해 8월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서안의 진시황릉, 병마용을 비롯해 중국 서역 최대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루무치까지 진행된 3차 중국탐방에 이어 올해 4차 탐방을 계획중이다.

이러한 동아리들의 창립은 이제 대학문화가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70·80년대의 대학문화는 풍물, 연극 등 공동체 성향을 지니는 문화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젊은 이들의 개성과 그들의 열정을 대변하는 문화들이 꽃피기 시작했다.

이렇게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요즘의 대학문화가 앞으로는 우리 문화 전반의 다양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 추천동호회 - 더불어 사는 세상

# 온라인에서 싹튼 사람사랑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주식이나 스톡 등 개개인의 이익과 흥미를 위한 모임이 생겨나고 있는 요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뭉친 이들이 있다. 세이클럽(www.sayclub.com)에 등지를 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바로 그들이다.

봉사활동에 뜻을 두고도 여건상 남을 도울 수 없었던 이들이 모여, 지난해 5월 사이버 자원봉사 동호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들은 먼저 온라인 동호회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활동과 폭넓은 회원층을 확보해 현재 1천6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이며 얼마 전 세이클럽이 인증하는 우수동호회로 뽑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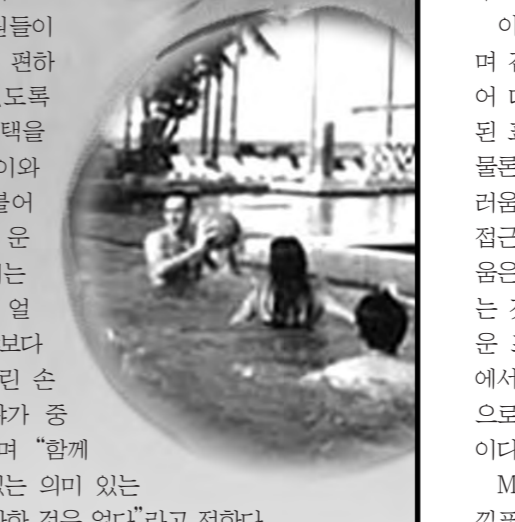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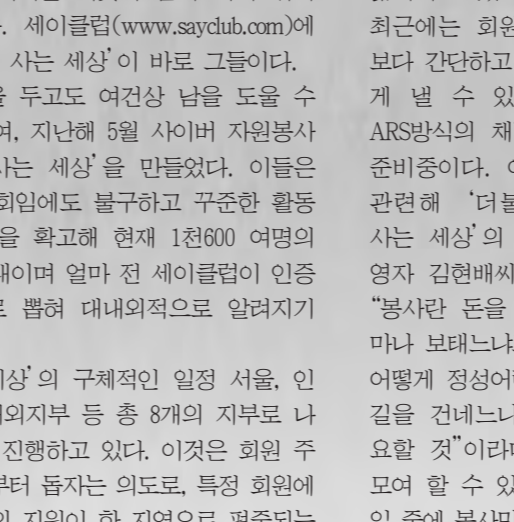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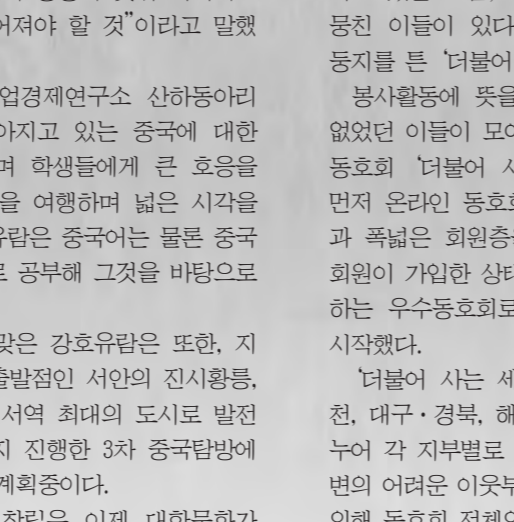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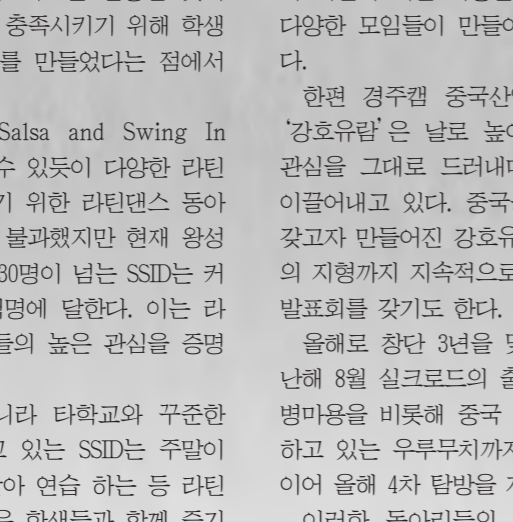
'더불어 사는 세상'의 구체적인 일정 서울, 인천, 대구·경북, 해외지부 등 총 8개의 지부로 나누어 각 지부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회원 주변의 어려운 이웃부터 돕자는 의도로, 특정 회원에 의해 동호회 전체의 지원이 한 지역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특히 이 동호회는 지원시설을 정부예산에 받지 못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회원들에게 추천을 받아 해당지부장의 직접 방문이나 구청을 통해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친다는 점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모금 역시 회원들의 자발에 맡겨 시설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취해 금전상의 불미스러운 일을 애초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더불어 사는 세상' 전체의 오프라인 활동은 자제하고 있지만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거나 장애인들의 무료농구 관람과 같은 이벤트를 기획해 점차적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들이 보다 간단하고 편하게 낼 수 있도록 ARS방식의 채택을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 사는 세상'의 운영자 김현배씨는 "봉사란 돈을 얼마나 보태느냐보다 어떻게 정성어린 손길을 건네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중에 봉사만한 것은 없다"라고 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자기개발을 위해 동호회에 가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의 회원들은 자기개발이나 의미 있는 삶이란 결코 개인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근래 들어 부쩍 개인적인 관심사만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동아리들과 그것을 좇는 이들을 보면서 진정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 모임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불수록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오랜 세월 풍화 작용으로 1만 2천봉이라 일컫는 기묘한 봉우리를 비롯한 천태만상의 기암괴석을 이루고 있는 산. 절마다 색다른 특징을 나타내 4가지 이름을 가진 천연의 관광명소. 남한의 관광객들은 분단선을 넘고 외금강 온정리에서 시작되는 다양한 코스를 돌아보며 그 절경을 입을 다물지 못했다.

▲9·11 참사 이후 미국은 전 세계를 테러와 반테러로 이분할 것을 강요하며 국제질서의 인위적 재편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미 고위 관리들의 연이은 대북 강경 발언은 예사롭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6차 장관 회담의 결렬은 미국의 국제 질서 재편 움직임과 함께 남한 사회의 친미보수화를 드러내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정세의 연장선상에서 남한 사회는 이회창 대세론이 기승을 부리고 야당은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개혁을 통해 민간급 교류를 통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실정이다. ▲2001년 상반기에 활발히 진행된 남북간 민간급 교류는 6·15, 8·15에 각각 각층이 한 자리에 모여 민족의 통일지지를 과시하는 단합과 화해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운동의 성과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북단 7명 구속,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등 전반적인 반통일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수는 약 43만 명에 이른다. 이는 관광 차원을 넘어 물적·인적교류로서 민족화해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증거다. 올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60회생일, 남한은 5월 월드컵 등 중요한 일정이 겹쳐있다. 상반기 민간급 교류의 향방이 정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다시한번 금강산은 단순한 관광지 아닌 남북민간교류와 한반도 평화실현의 매개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김윤미 사회부장 kiza41@dongguk.edu

## 메아리 '금강이라네'

# 사진으로 돌아보는 2001년

사진 · 글 = 사진부



◀ '만경대 정신 이어 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강정구 교수가 방명록에 남긴 이 글귀는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만경대 파문은 여전히 남한 내부에 남아있는 '레드컴플렉스'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다.



▲2000년 말부터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K교수가 복직되면서 학생들의 큰 반발을 샀다. 올해 K교수에게 전공 수업이 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교수도 노동자'라는 주장을 내걸고 지난 11월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지만 교수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대학사회의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되기를...



◀4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 어느 해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예상됐지만 학생들의 무관심은 여전했다. 그래도 올 한해 동아 곳곳을 누빌 새로운 대표자들과 끝까지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은 있다!



▶2000년 미시령 사고의 아픈 기억을 뒤로한 채 지난 2월 많은 학생들의 참여 속에 새내기 새로 배움터가 성사됐다. 눈발이 날리는 곳은 날씨도 새터를 향한 새내기들의 들뜬 마음을 붙잡아 두진 못했다.



◀표현의 자유 vs. 통신질서 확립. 팽팽하던 시민단체와 정부의 줄다리기는 결국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으로 정부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등급제 거부로 이후에도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 역경원은 37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마침내 '한글대장경' 318권을 완간에 화제가 되었다. 7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글 뜻을 읽은 대장경. 한글대장경 완간은 불교계에 한 획을 그은 커다란 업적이라 할 수 있다.



▲히말라야 정상에 우뚝 선 산사나이 박영석 동문. 지난 93년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으로 가장 험난했던 마지막 K2까지... 8년에 걸친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히말라야 14좌 완등' 도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2년 새해에도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할 히말라야 사나이의 모습이 기대된다.



▲9월 11일, 갑자기 날아든 두 대의 비행기가 미국 본토를 혼란에 빠뜨렸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에 가해진 비행기 자살 테러. 이 테러는 뉴욕 시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사람들을 테러의 공포로 몰아 넣었을 뿐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 뜨리기에 충분했다.



▶테러에 대한 양각음으로 시작된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테러 집단만이 아닌 듯싶다. 푸른 하늘에서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포탄은 저항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코흘리개 꼬마 아이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미국의 모습은 단지 또 하나의 테러 집단일 뿐이다.